

#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auri) 건축공간연구원



## 알려두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2020년 auri에서 수행한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와 2021년 auri에서 수행한 「고령자의 건축공간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여는글



“**건축공간**”이란 내가 사는 집의 내부공간과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지역의 시설 내부공간을 포함하는 **건축물 내부의 공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 자체와 주택 내부의 화장실, 주방, 거실이 건축공간이며 동네 슈퍼마켓, 약국 등 지역시설의 내부도 건축공간이다.

“**도시환경**”이란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모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소**로 이루어진 **건축물 외부의 공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 밖으로 나와 경험하는 보행로, 횡단보도, 공원, 버스정류장, 벤치, 동네 슈퍼마켓 또는 약국 등이 도시환경이다.

“**생활환경**”이란 인간이 자고 먹고 놀거나 일하며, 가족친구, 이웃과 **관계를 형성**(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건축공간과 도시환경**, 그리고 자연환경을 의미한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단순히 주택 또는 시설의 내부공간과 외부환경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지역 또는 동네**로 일컬어진다.

“우리 동네는 살기 좋아!”라고 말하는 이는 본인의 집과 집이 위치한 지역의 시설과 장소, 즉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으로 구성된 생활환경에 만족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우리 동네, 살기 좋아!”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 목차



### 01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환경,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002
- 베이비부머가 몰려 온다! 005
- 고령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없다? 008

### 02 ‘집 안’에 대한 이야기

- 건축공간에 대해 이야기한 어르신의 특성 014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어르신도 불편한 주거소음과 불안한 낙상 안전 015
- 집 안에서 어르신이 가장 불편한 곳은 화장실 017
- 절반 이상의 어르신이 불편함으로 인해 편의설비를  
설치한 공간은 부엌·주방 020
- 문턱, 계단 등 바닥 높이 차이가 있는 공간에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 023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편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 026
- 화장실과 계단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어르신의 주거공간 내 낙상 방지 028

### 03 ‘집 밖’에 대한 이야기

- 도시공간에 대해 이야기한 어르신의 특성 034
- 어르신 10명 중 7명 이상은 주 5회 이상 걸어서 외출 035
- 외출 시 가장 불편한 공간은 보행로 037
- 외출 시 휴식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설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보행로 040
- 어르신에게 여유롭지 않은 횡단보도 보행시간 043



•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공원	046
• 앉을 곳이 부족한 대중교통 정류장, 크고 선명하지 않은 안내표지판	049
• 어르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 외부공간에서의 낙상 방지	052

## 04 ‘지역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

• 어르신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소규모 상업시설	056
• 대다수의 어르신은 민간 병·의원을 다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건소의 이용도 증가	060
• 65세 미만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청 및 노인교실로, 75세 이상은 경로당으로	064
• 65세 미만 어르신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문화생활	068
• 코로나19 확산 이전 65세 미만 어르신의 4명 중 1명은 체육시설을 이용	071
• 코로나19가 바꾼 지역 생활편의시설의 이용 빈도	074

## 05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대한 이야기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080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	083
•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집에서 지속 거주를 희망	086
•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대안, 서비스 연계형 주택과 고령친화 돌봄 공동체 마을	090
•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서 지속 거주를 희망	092
• 집으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 생활편의시설까지의 적정 거리는 걸어서 10분 이내	094

## 06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건축과 도시공간이 되려면?

•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건축공간이 되려면?	098
•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도시환경이 되려면?	101
•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지역사회가 되려면?	104

<b>부록</b>	10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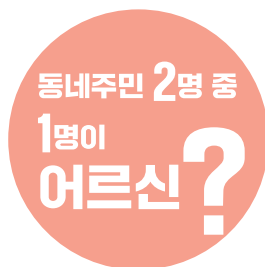
01

#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환경,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우리나라 ‘어르신’의 이야기를 왜 궁금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건축공간과 도시공간, 즉 지역과 동네를 이용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주로 ‘어르신’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어르신, 즉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4.21%를 기록하였고 **고령사회에 진입**, 2025년에는 20%를 넘어가며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인구는 총 1,000만 명 규모가 될 예정이다. 2021년에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40대 중반이 되어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을 2067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5.4%에 이를 전망이다.<sup>1</sup> 즉, 우리나라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을 이용하고 경험하는 국민 2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상황이 펼쳐질 예정이다.

.....

1. 통계청, 2019



지역과 동네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져야 하며, 주로 경험하는 주민이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공간은 주로 이용하고 경험하는 사람 2명 중 1명이 고령자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동네는 어르신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동네는 모든 연령에게 부족함 없는 동네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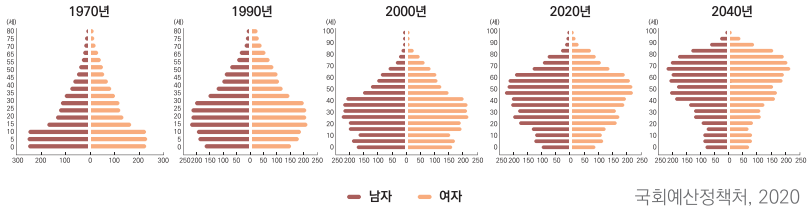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동네는 나이가 들며 감퇴하는 신체·정신적 기능과 능력에도 어르신이 이전의 일상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신체·정신적 기능과 능력이 왕성한 젊은 세대와 인지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어르신만을 위한 동네 또는 청년, 아동을 위한 생활환경이라고 일컫기 보다는 ‘**인간이 태어나 나이 들어가는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환경**’이 된다.

동네주민이 어르신과 함께 활기차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생활환경,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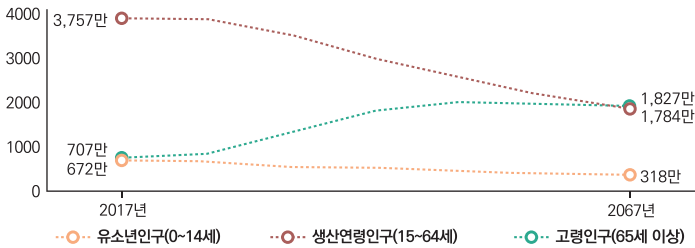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동향과 전망

단위: 세,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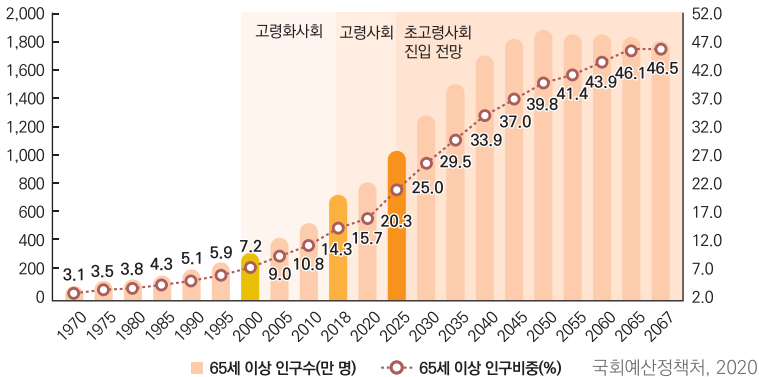
##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변화 전망, 2017-2067년(중위)

단위: 만 명



통계청, 2019; 연합뉴스, 2019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 현황 및 추계







## 베이비부머가 몰려 온다!

기존  
고령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 또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란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베트남 전쟁 참전 전까지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를 뜻한다.<sup>2</sup> 전쟁이 끝나고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다시 만나 미루었던 결혼과 출산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며 생겨난 세대이다. 전후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삶과 안녕을 희생하였던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2020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696만 명이다.

시간이 흘러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가 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1955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2020년 65세 고령자가 되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령 인구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  
2. 시사상식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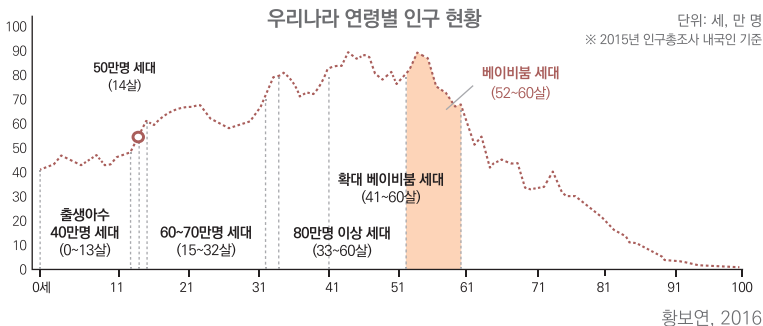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고령세대가 보여왔던 저소득과 쇠약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새로운 고령세대, 신중년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소득을 5등급으로 나누어 본 2019년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자료는 가구주 소득의 상위 20%<sup>5분위</sup>, 차상위 20%<sup>4분위</sup>에 당시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가 속해 있는 5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26.6%, 20.4%로 베이비붐 세대 중 47%가 소득 상위 40%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50대 그룹의 소득 하위 20%<sup>1분위</sup>, 차하위 20%<sup>2분위</sup> 비율은 각 6.8%, 15.8%이다. 당시 기존 고령세대인 60대 이상 그룹의 소득 하위 20%, 차하위 20% 비율이 각 78.9%, 42.8%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기존 고령자와는 소득수준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은 신중년, 올드(Old) <sup>Young과 Old의 합성어. 젊은 고령자를 의미</sup>와 같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기존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고령자 모두를 고려하는 고령사회 대응과 고령친화 건축·도시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 5분위별 연령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대 이하	2.6	6.6	7.5	5.9	5.1
30대	5.1	9.7	19.3	23.0	20.8
40대	6.6	25.1	30.1	30.0	32.4
50대	6.8	15.8	17.9	20.4	26.6
60대 이상	78.9	42.8	25.2	20.7	15.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가구자산 현황

구분		총 자산(만원)	총 부동산 자산(만원)	부동산 자산 비율(%)
전체		54,389.0	44,922.6	82.6
지역	수도권	85,527.2	72,802.8	85.1
	지방	37,188.2	29,521.5	79.4
소득분위 (오분위)	1분위	41,969.9	38,359.6	91.4
	2분위	33,402.0	29,536.2	88.4
	3분위	36,277.0	30,943.9	85.3
	4분위	42,941.6	36,682.8	85.4
	5분위	83,119.2	65,714.4	79.1

이후빈 외,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고령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없다?

어르신의  
생활환경  
인식·만족도  
조사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르신의 주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동네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직접 여쭙어 보고 말씀을 종합하여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고령세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대규모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특히,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는 이의 인식과 만족에 대한 의견이 중요하다. “집에 방은 몇 개 입니까?”, “지금 사시는 곳에서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와 같은 사실에 대한 조사<sup>실태조사</sup>와 함께 “집 현관은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은 인식과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조성 여부의 실태와 함께 실제 사용과 경험에 따른 인식과 만족을 바탕으로 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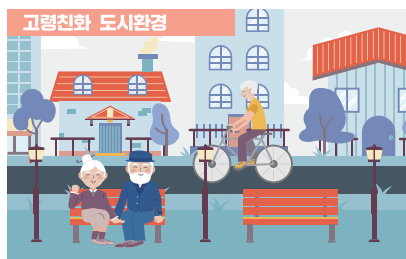
사실,

우리나라에는 어르신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가 있다. 노인실태조사와 주거실태조사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3년마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노인실태조사를 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구 단위의 주거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노인을 포함하는 전 국민 대상의 주거실태조사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사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을 실제 사용하고 경험하는 이의 인식과 만족 조사도 필요하다. 노인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와 같은 실태 파악과 함께 어르신이 경험하는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과 만족의 이야기까지 종합하여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동네를 만들어가야 한다.









## 본문 출처

- p.2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 p.36
- p.5 시사상식사전. (n.d). 베이비붐 세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5590&cid=62841&categoryId=62841>(검색일: 2021.10.31.)

## 그림 출처

- p.4 국회예산정책처. (2020).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 총론. pp.14~15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 p.36; 장예진. (2019). [그래픽] 장래인구특별추계 주요 내용. 연합뉴스. 3월 28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GYH20190328000700044>(검색일: 2021.10.31.)  
국회예산정책처. (2020).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 총론. p.13
- p.6 황보연. (2016).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급류'에 주목하라. 한겨레. 12월 28일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474.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474.html)(검색일 : 2021.10.31.)

## 표 출처

- p.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재정패널조사 - 2018년 소득5분위별 가구주 특성.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검색일 : 2021.10.31.)  
이후빈, 박미선, 조윤지, 우지윤, 백해연, 다무라 후미노리. (2020). 베이비붐세대 주택자산 유동화와 연계한 주거대안 구축방향 탐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1차년도 재정패널조사에서 재인용



##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 고령자의 건축공간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전국 만 55세에서 84세 어르신 **1,500명\***

\* 단, 현재 거주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설문조사를 수행



#### 조사기간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 조사방법

전문 조사원이 어르신과 1:1 대면면접으로 진행



#### 결과 신뢰도

신뢰구간 95%일 때 최대오차허용범위  $\pm 2.53\%p$





02

# ‘집 안’에 대한 이야기





## 건축공간에 대해 이야기한 어르신들의 특성

어르신이  
생각하는  
건축공간 ?

### 거주 지역

55%



45%



행정구역이 모두 '동'으로 구성된 도시형

행정구역이 '읍, 면, 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형

###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들

만 55세~64세 (7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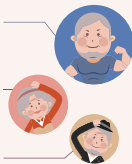
52.3%

만 65세~74세 (464명)

30.9%

만 75세~84세 (251명)

16.7%



### 어르신 10명 중 8명은 주택을 소유

자가  
87.2%



만 55세~64세

전세 10.6%

월세 3.6%

만 75세~84세

전세 6.4%

월세 5.6%

전세  
8.4%



### 임대주택 거주 10명 중

민간임대주택

7명

공공임대주택

2명



임차료나 대출금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주택 거주자

75%

### 현재 거주하는 주택 유형



아파트

57.5%



단독주택

24.3%



연립·다세대주택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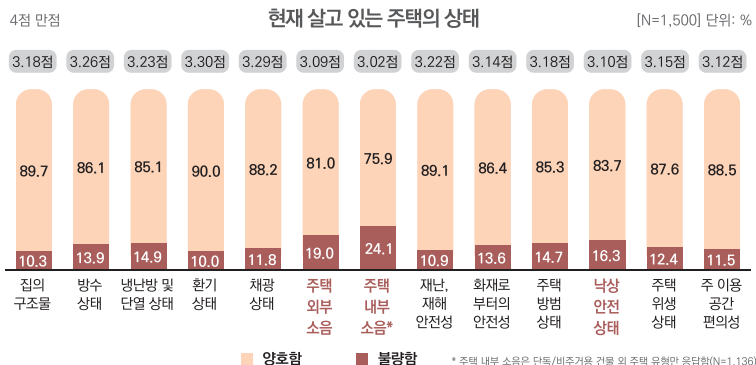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어르신에게도 불편한 주거소음과 불안한 낙상 안전

어르신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상태에 대해 10명 중 7명의 어르신은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점 만점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주택내부소음’과 ‘주택외부소음’은 4점 만점 3.02점과 3.09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낙상안전상태는 3.14점으로 다른 항목 대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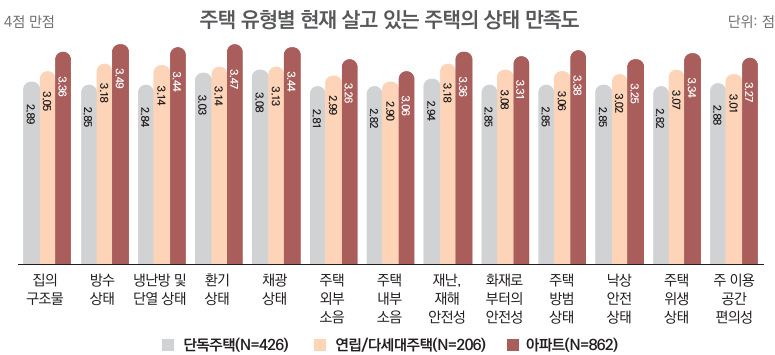


단독주택 또는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비해 집의 구조적 안전, 방수, 냉난방 및 단열 등 주택 상태에 관한 모든 질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32.9%<sup>2.81점</sup>와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26.2%<sup>2.99점</sup>가 주택외부소음에 불만을 표시하신 것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는 10.2%<sup>3.26점</sup>만이 주택외부소음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28.4%<sup>2.85점</sup>와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17.5%<sup>3.02점</sup>가 낙상 안전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는 9.9%<sup>3.25점</sup>만이 낙상 안전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주택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집 안에서 어르신이 가장 불편한 곳은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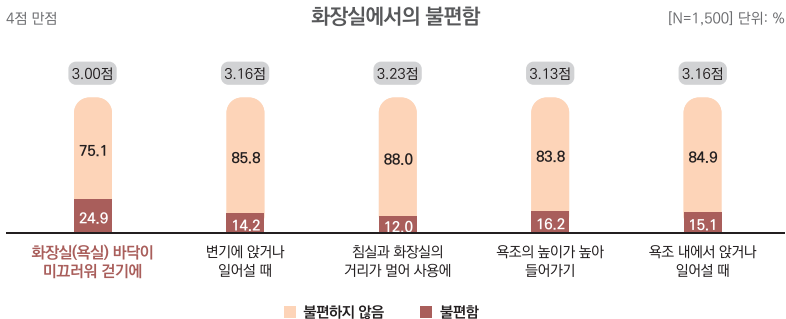
어르신이  
불편한  
실내공간은?



### 주거공간에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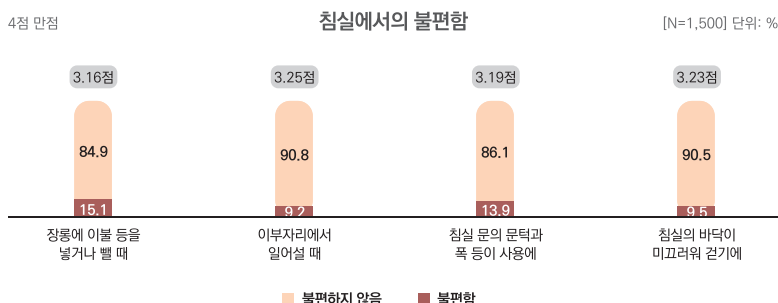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이후 현재 집에서 생활하면서 ‘현관, 부엌, 화장실, 침실, 거실, 계단’ 등 주거공간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르신들은 화장실에서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은 ‘화장실(욕실) 바닥이 미끄러워 걷기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24.9%로 가장 많았다. 만족도는 3점<sup>4점 만점</sup>으로 모든 문항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욕조의 높이가 높아 들어가기에<sup>3.13점</sup>’, ‘욕조 내에서 앉거나 일어설 때<sup>3.16점</sup>’ 불편하다는 응답이 각각 16.2%, 15.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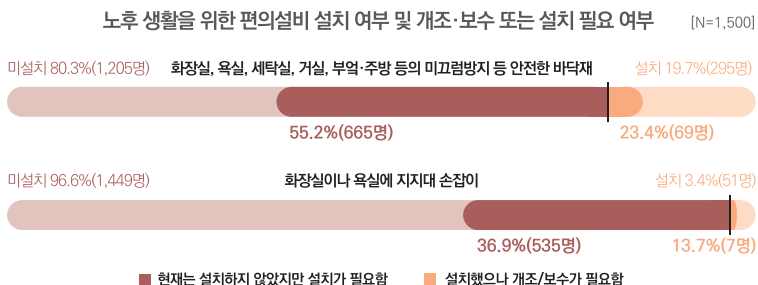


**침실**은 ‘장롱에 이불 등을 넣거나 뺄 때’ 불편하다는 응답이 15.1%로 많았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은 ‘침실 문의 문턱과 폭 등이 사용에’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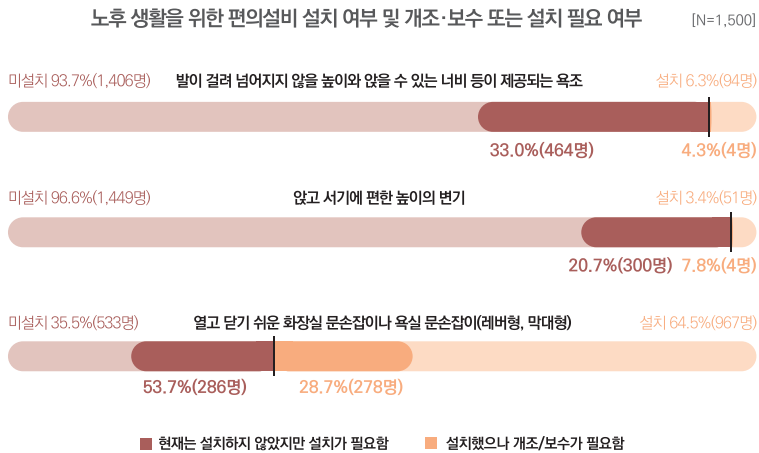
**방, 현관** 등의 문턱 단차 제거와 **화장실** 등의 미끄럼방지 바닥재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화장실, 욕실, 세탁실, 거실, 부엌 등의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 설치’를 하지 않은 80.3%의 어르신 중 절반 이상<sup>55.2%</sup>이 해당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화장실 욕조의 높이와 너비 등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또는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를 실제 설치한 어르신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설비의 설치 필요성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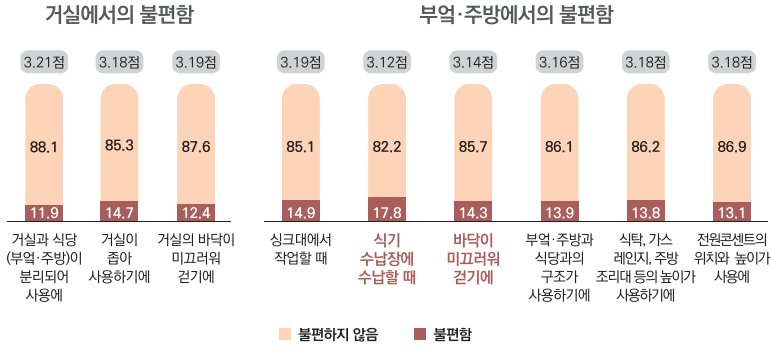
## 절반 이상의 어르신이 불편함으로 인해 편의설비를 설치한 공간은 부엌·주방

많은 어르신들이  
편의설비를  
설치한  
부엌·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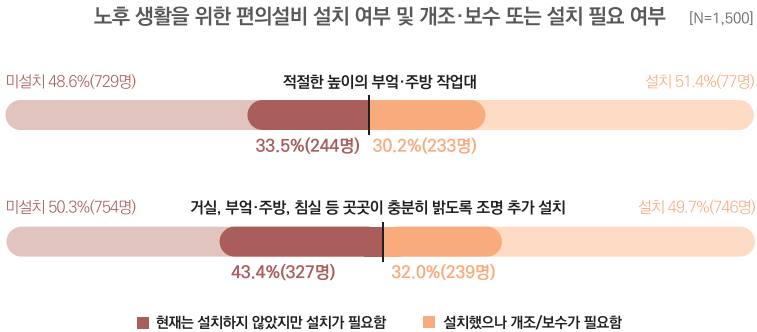
**거실**과 관련된 문항 중에서는 ‘거실이 좁아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14.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만족도는 3.18점<sup>4점 만점</sup>으로 유사한 응답률을 보인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부엌·주방**과 관련된 문항 중에서는 ‘식기수납장에 수납할 때’ 불편하다는 응답이 17.8%로 가장 높았고, ‘싱크대에서 작업할 때’, ‘바닥이 미끄러워 걷기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각각 14.9%, 14.3%로 나타났다. 4점 만점으로 환산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식기 수납장에 수납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3.1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싱크대에서 작업할 때 불편하다고 느낀 어르신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3.19점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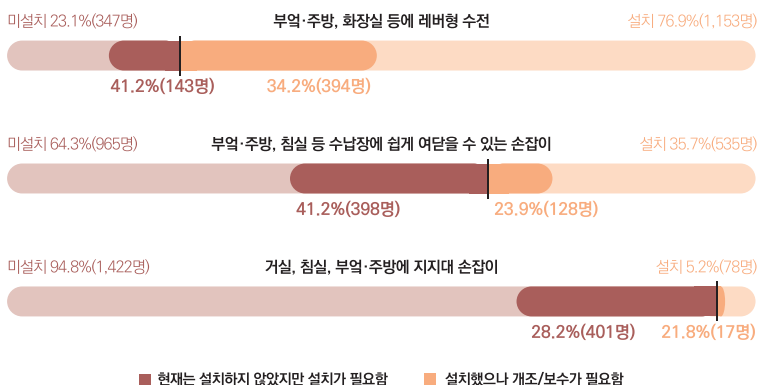
노후에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설비 중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 주택 내부의 충분한 조명 설치 등은 약 50% 이상의 응답자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이미 해당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미 설치한 어르신 중 약 30%는 개조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주방, 화장실 등에 레버형 수전’과 ‘부엌·주방, 침실 등 수납장에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 비율은 각각 76.9%, 35.7%이었다. 또한 이 두 가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어르신 중 약 40% 이상은 해당 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위한 편의설비 설치 여부 및 개조·보수 또는 설치 필요 여부 [N=1,500]







## 문턱, 계단 등 바닥 높이 차이가 있는 공간에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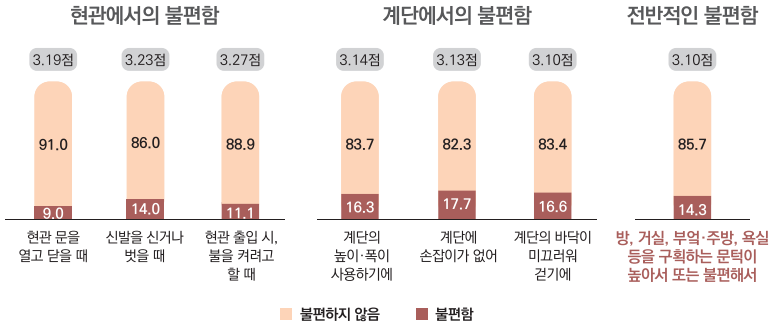
어르신들이  
불편한  
문턱, 계단

**현관**과 관련된 문항 중에서는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불편하다는 응답이 14.0%로 가장 높았으나, 만족도는 3.23점으로 예상과 달리 높게 나타났다.

**계단**에서는 계단에 손잡이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17.7%<sup>3.13점</sup>로 가장 높았고, 계단의 바닥이 미끄러워 걷기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16.6%<sup>3.10점</sup>, 계단의 높이, 폭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16.3%<sup>3.14점</sup>로 나타났다. 계단과 관련된 세 가지 문항 모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계단 이용의 안전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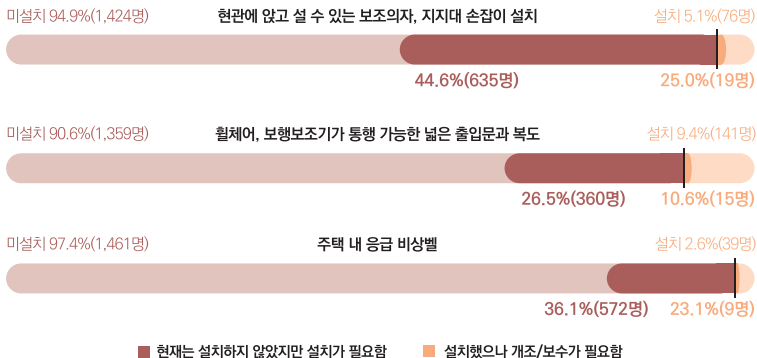
주거공간 전반적으로 방을 구획하는 문턱이 높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14.3%이었고, 4점 만점 중 3.10점으로 전체 문항 중에서 만족도가 두 번째로 낮았다.





신발은 신거나 벗을 때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현관에 앉고 설 수 있는 보조의자**, **지지대 손잡이**를 설치한 어르신은 전체의 5.1%<sup>76명</sup> 밖에 되지 않는다. 보조의자, 지지대 손잡이 등을 설치하지 않은 어르신 94.9%<sup>1,424명</sup> 중 44.6%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해당 설비를 이미 설치한 어르신의 약 25%는 **개조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위한 편의설비 설치 여부 및 개조·보수 또는 설치 필요 여부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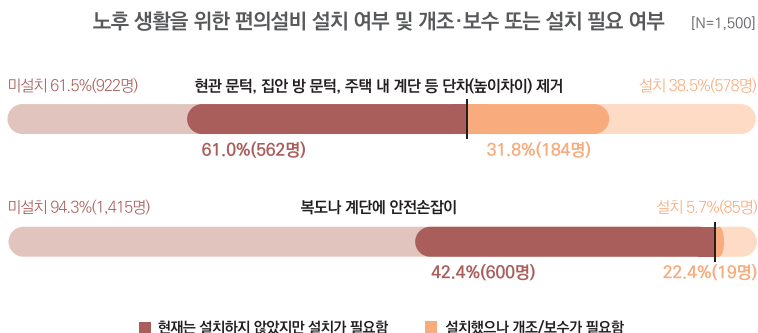




노후에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설비 중 설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설비는 ‘현관 문턱, 방문의 문턱, 주택 내 계단 등의 단차 제거 6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차 제거는 화장실의 문손잡이, 레버형 수전과 같이 이미 설치한 비율과 설치에 대한 수요도 높은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약 38.5%의 어르신은 편의를 위해 이미 단차 제거 공사를 하였으나 이중 31.8%는 개조·보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도나 계단의 안전손잡이의 경우 설치 비율은 낮지만, 설치에 대한 수요가 42.4%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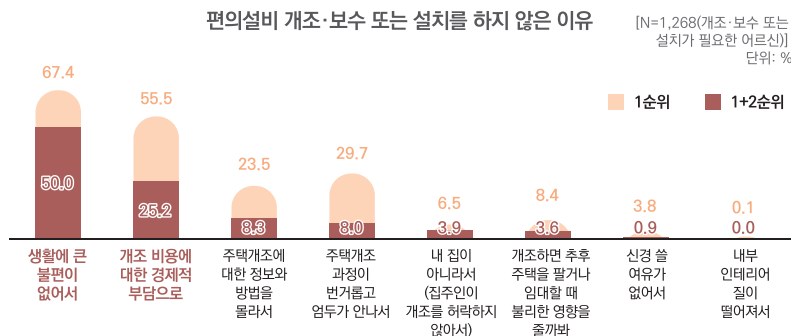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편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편의설비

시설과 설비의 개조·보수 또는 설치가 필요함에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 50.0%’와 ‘개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25.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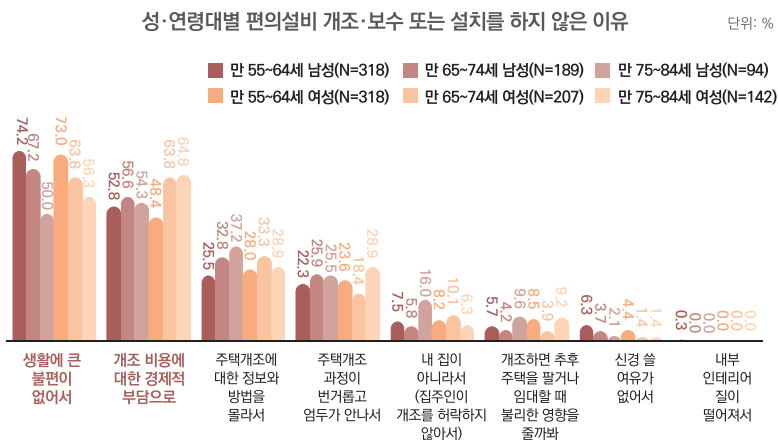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 또한 동일하게,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 67.4%’, ‘개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55.5%’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라고 응답<sup>71.4%(1+2순위)</sup>하는 경향이 높았고, 단독주택 거주자는 ‘개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라고 응답<sup>64.8%</sup>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제적 부담은 65세 이상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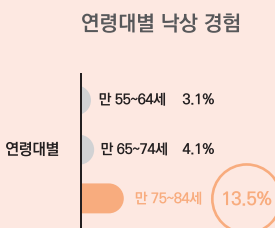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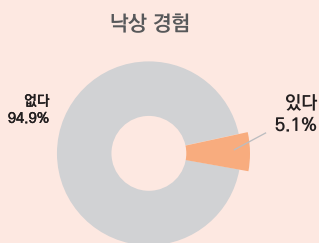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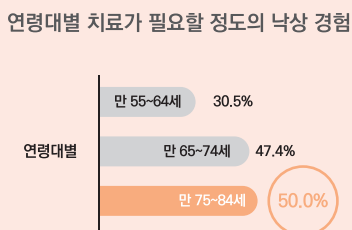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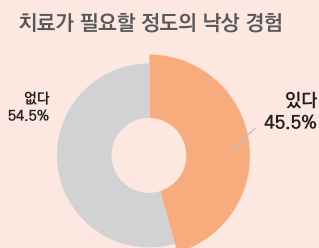
##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한 바닥재, 안전손잡이 설치 등 화장실과 계단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어르신들의 주거공간 내 낙상 방지

최근 1년간 낙상을 경험한 어르신은 1,500명 중 77명<sup>5.1%</sup>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75세 이상 8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낙상 경험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상을 경험한 어르신의 45.5%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낙상이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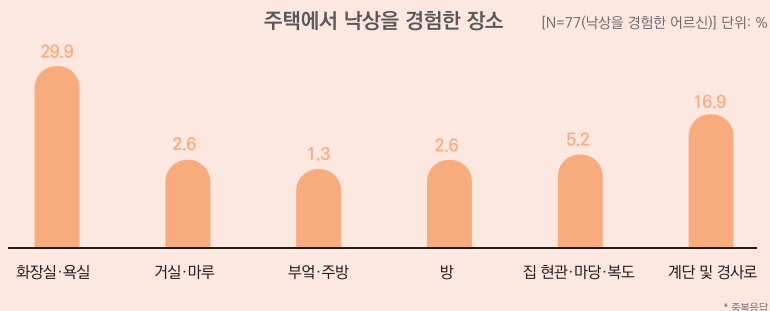


[N=77(낙상을 경험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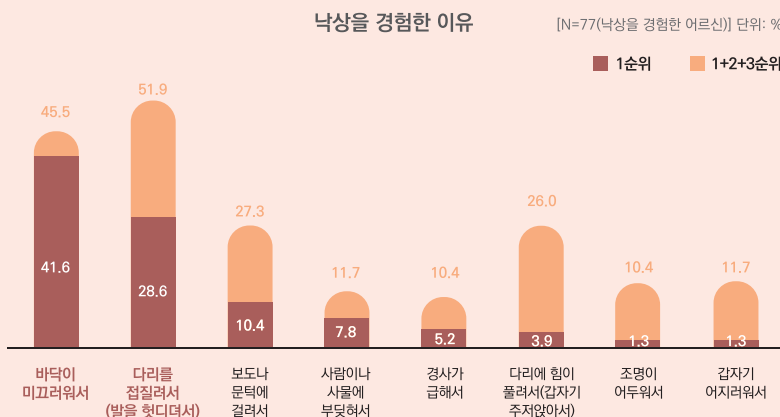




어르신들에게 낙상을 경험한 장소를 물어본 결과, **화장실·욕실**에서 낙상을 경험한 어르신이 **29.9%** 중복응답, **계단 및 경사로**에서 낙상을 경험한 어르신이 **16.9%**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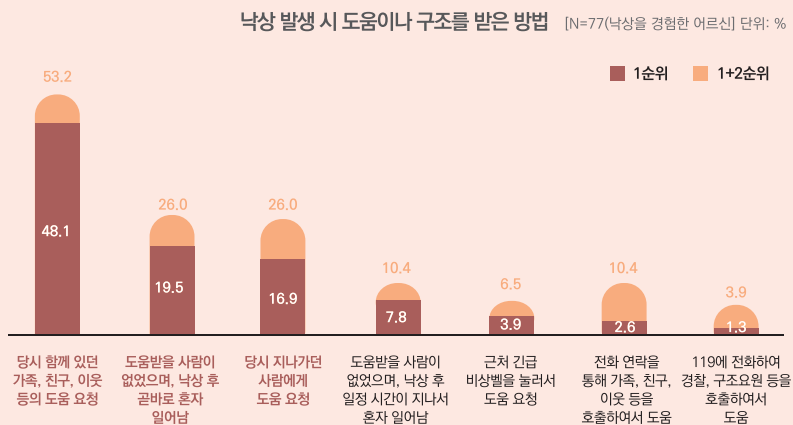
낙상을 경험한 이유로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45.5%**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 2, 3순위를 종합한 결과 다리를 접질려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보도나 문턱에 걸려서 낙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의 낙상은 주로 낮<sup>41.6%(중복응답)</sup>, 아침<sup>35.1%</sup> 시간대 등 활동이 많은 주간에 발생하였다.

낙상이 발생한 이후 도움이나 구조를 받은 방법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 어르신의 53.2%는 '당시 함께 있던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도움 요청'을 통해, 26.0%는 '당시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6.0%는 '도움 받을 사람이 없었고 낙상 후 곧바로 혼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의 약 5%만이 최근 1년간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소 낙상을 대비하여 조심히 생활하는 어르신이 10명 중 8명 이상<sup>81.4%</sup>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특히 여성 어르신이 낙상에 유의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팡이와 같은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등 평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낙상에 대비하여 더욱 조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전국 만 55세에서 84세 어르신 **1,604명\***

\* 단, 현재 거주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설문조사를 수행



#### 조사기간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 조사방법

전문 조사원이 어르신과 1:1 대면면접 조사



#### 결과 신뢰도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범위  $\pm 2.45\%p$





03

## ‘집 밖’에 대한 이야기





# 도시공간에 대해 이야기한 어르신들의 특성

도시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 거주 지역

51%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49%

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들



만 55세~64세 (705명)

44%



만 65세~74세 (625명)

32.7%



만 75세~84세 (374명)

23.3%

## 어르신들의 운전 실태

14.4%

과거 운전경험이 있는 어르신



43.8%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어르신

41.8%

운전경험이 없는 어르신

## 걸어서 매일 외출하시는 어르신

53.0%

외출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절반 수준 (28.8%)



##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17.4%



## 현재 거주하는 주택 유형



50.0%

아파트



단독주택

35.2%



연립·다세대주택

13.8%





## 어르신 10명 중 7명 이상은 주 5회 이상 걸어서 외출

주로  
걸어다니시는  
어르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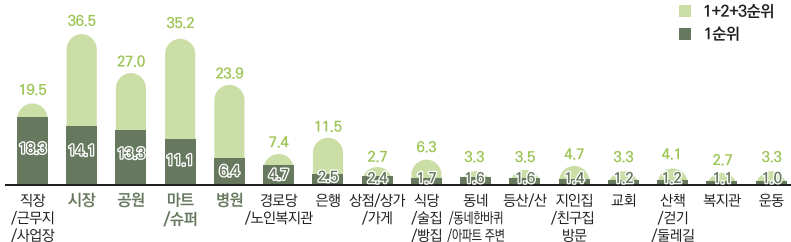
### 어르신이 도보로 외출 시 주로 방문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어르신이 주로 방문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직장/근무지가 1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장 14.1%, 공원 13.3%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장 36.5%, 마트 또는 슈퍼 35.2%, 공원 27.0%, 병원 23.9%’은 평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아니지만 평소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이다<sup>1+2+3순위</sup>**.

남성의 경우 직장/근무지<sup>21.1%</sup>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편이며, 여성은 외출 시 시장<sup>20.0%</sup>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시 주로 방문 또는 이용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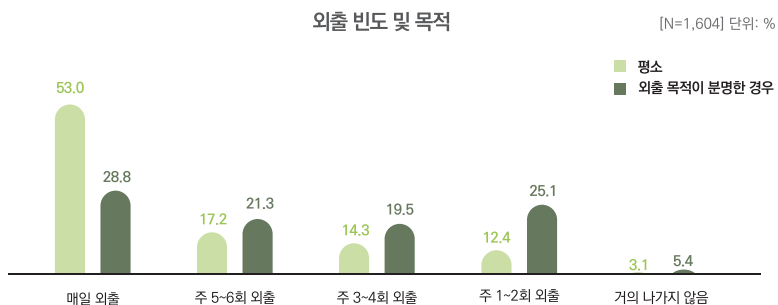
[N=1,604] 단위: %





어르신 10명 중 7명 이상은 주 5회 이상 매일 외출 53.0%+주 5~6회 외출 17.2% 걸어서 외출하고 있었다. 평소 외출빈도가 적은 어르신일수록 목적지가 분명한 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만 55세부터 65세 미만 어르신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매일 외출' 응답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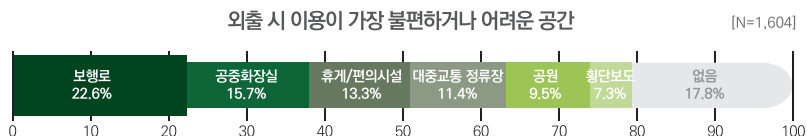


## 외출 시 가장 불편한 공간은 보행로

어르신에게  
가장 불편한  
공간  
보행로

평소 거주 지역에서 외출 시 이용하기에 가장 불편하거나 어렵다고 느낀 공간은 어디인가요?

어르신들은 **보행로** 22.6%를 가장 크게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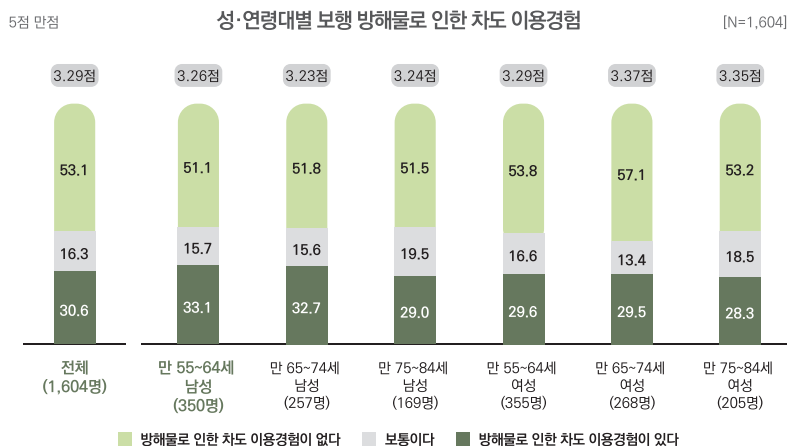
보행로는 거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외출 시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 나타났다으며, 단독주택 24.5%, 아파트 21.9%, 연립/다세대 18.9% 순으로 보행로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조기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40.0%가 '보행 영역의 안전노면 처리가 미흡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며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경우 28.6%가 불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보행로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불편하셨던 점은 무엇인가요?

보행로 주차, 불법 간판 등 보행 방해물로 인해 차도로 걸어가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6%<sup>매우 자주 있다 4.0%+어느 정도 있다 26.6%</sup>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보행 방해물로 인한 차도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만 55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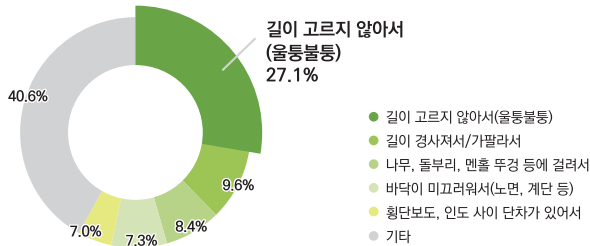
외출 시 급경사나 계단 때문에 ‘보행 중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어르신은 14.6%<sup>매우 자주 있다 1.0%+어느 정도 있다 13.6%</sup>로 조사되었다. 급경사 또는 계단으로 인한 불편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겪고 있으며, 특히 남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보행로는 어르신에게 낙상 경험 또는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다. 어르신들은 보행로에서 낙상하는 이유로, ‘길이 고르지 않아서<sup>27.1%</sup>’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보행로에서 낙상 위험이 있는 이유

[N=617(보행로에서 낙상 위험을 경험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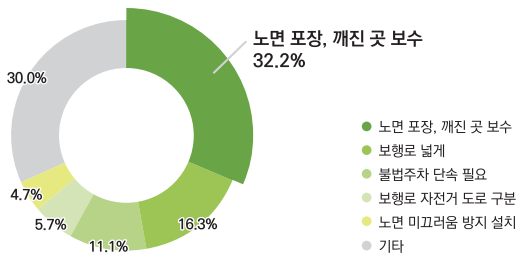


### 보행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보행로에서 불편을 느낀 어르신에게 보행로의 개선점을 질문한 결과, ‘노면 포장, 깨진 곳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2.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보행로를 넓게<sup>16.3%</sup>’ 등 보행로 정비와 관련된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보행로 개선점

[N=578(보행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







# 외출 시 휴식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쉴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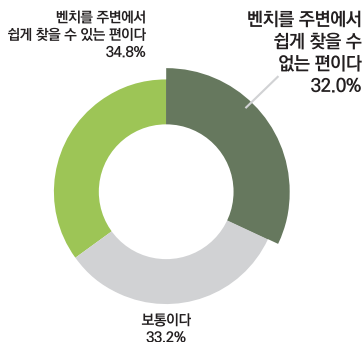
쉴 공간이  
부족한  
보행로

외출 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는 눈에 잘 띄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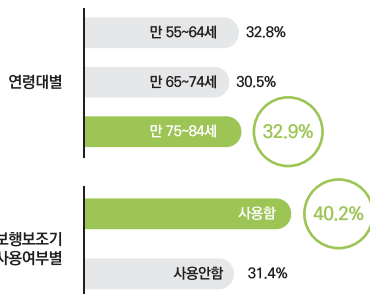
전체 32.0% 어르신은 외출 시 길을 걷다가 쉬어가고 싶을 때 마땅히 쉬어갈 곳이 없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휴게 및 편의시설 접근성

[N=1,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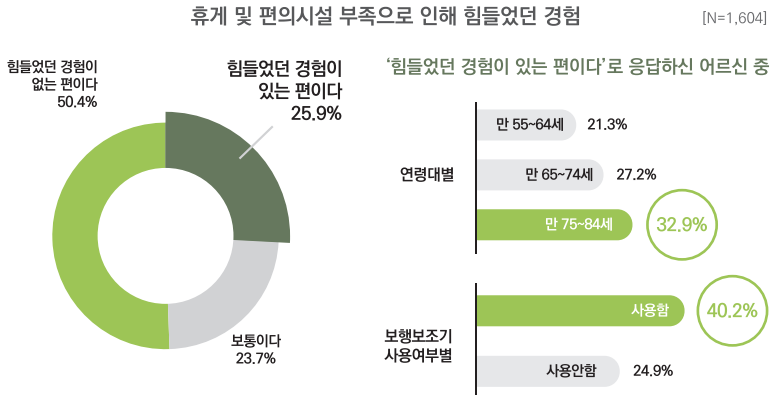


'벤치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편이다'로 응답하신 어르신 중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 25.9%는 평소 걸어서 외출할 때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주변에 없어서 보행 중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에게는 더욱 높은 응답률 42.0%을 보였다.



### 휴게 및 편의시설이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잘 설치되어 있나요?

잘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7.3%<sup>매우 그렇다 2.2%+그렇다 35.2%</sup>로 '그렇지 않다' 25.9%<sup>전혀 그렇지 않다 5.4%+그렇지 않다 20.4%</sup> 대비 높게 나타났다.

휴게 및 편의시설이 주요 시설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증설이 필요한 장소를 질문한 결과<sup>1+2+3순위</sup>, '공원 주변' 28.4%, '시장 주변' 16.1%, '길거리/보행로 주변' 10.1%, '버스정류장 주변' 8.7%, '마을 입구/동네 주변' 8.4% 등이 제시되었다.



[N=1,604] 단위: %







## 어르신에게 여유롭지 않은 횡단보도 보행시간

신호가  
짧아 불편한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어디에서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르신 10명 중 9명<sup>89.8%</sup>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안전 횡단이 가능한 지점을 더 쉽게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횡단보도 이용 시 녹색불이 켜지면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나요?

‘있다’는 응답은 86.4%<sup>매우 그렇다 24.1%+그렇다 62.3%</sup>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4.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횡단안전 보행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횡단보도 안전성은 특히 보행 보조기 사용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횡단 시 보행시간이 짧다고 느끼는 비중은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고령자**<sup>15.0%</sup>가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sup>3.5%</sup>보다 **4배 더 크게** 나타났다.



### 횡단보도 신호시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특성

[N=1,604]



전체 어르신의 절반 이상<sup>52.0%</sup>, 전혀 그렇지 않다 15.1%+그렇지 않다 36.9%이 횡단보도 교통섬 설치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통섬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을 위한 교통섬 설치 필요성 역시 휠체어나 보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sup>39.0%</sup>을 보였다. 횡단안전 보행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수록 교통섬 설치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 매우 자주 있다 0.5%+어느 정도 있다 11.4%만이 횡단보도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횡단보도에서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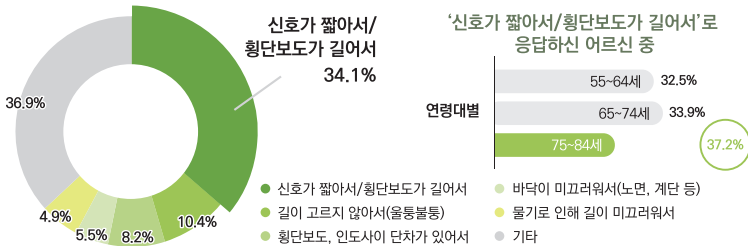
횡단보도에서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로 ‘신호가 짧아서/횡단보도가 길어서’<sup>34.1%</sup>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만 75세 이상 85세 미만 어르신의 37.2%가 횡단보도 신호시간이 짧아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횡단보도에서 낙상 위험이 있는 이유

[N=182(횡단보도에서 낙상 위험을 경험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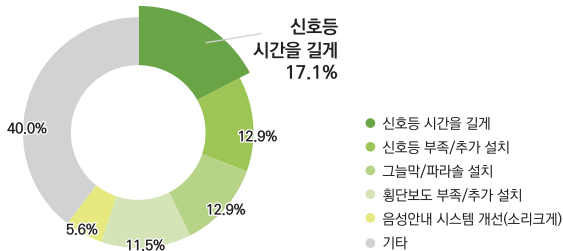


###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에 대해 ‘아파트 주변<sup>4.1%(1+2+3순위)</sup>’이 가장 높고, 이어서 ‘공원 주변<sup>3.0%</sup>, 시장 주변<sup>2.9%</sup>’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생활환경 내에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횡단보도 개선점

[N=287(횡단보도에서 불편함을 느낀 어르신)]



한편, 횡단보도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는 ‘그늘막<sup>4.4%(1+2+3순위)</sup>, 교통섬<sup>2.4%</sup>, 신호등<sup>2.2%</sup>’ 등이 제시되었다.

### 횡단보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신호등 시간을 길게<sup>17.1%</sup>, 신호등 부족, 추가 설치<sup>12.9%</sup>, 그늘막/파라솔 설치<sup>12.9%</sup>’ 등 신호 시간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





##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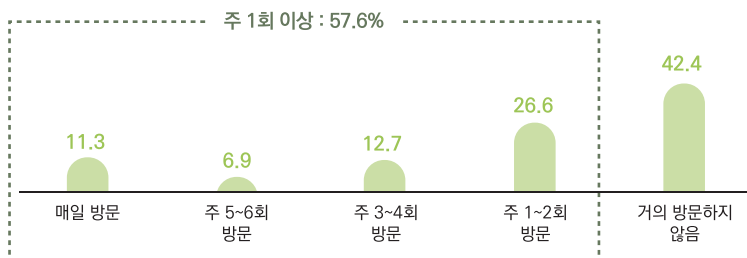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한  
공원

전체 어르신의 절반 이상<sup>57.6%</sup>이 공원에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있다. 주 1회 이상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은 ‘주 1~2회 방문<sup>26.6%</sup>’이 가장 많았다.

대체로 남성 어르신이 여성 어르신보다 공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공원 방문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공원 방문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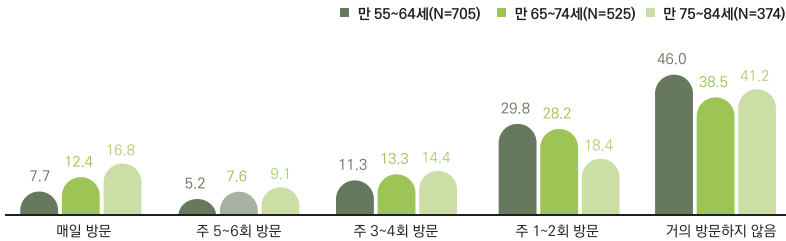
[N=1,604] 단위: %





연령대별 공원 방문 빈도

단위: %



### 공원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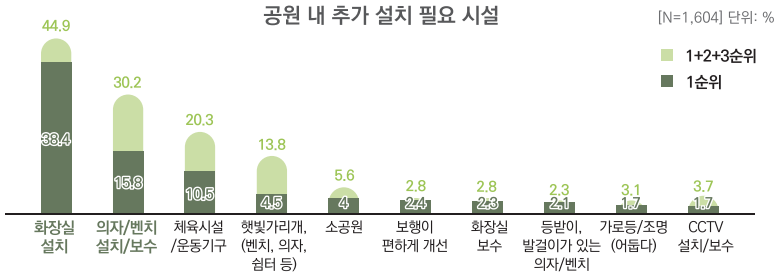
‘운동’,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 ‘매일 방문’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음<sup>61.1%</sup>’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 어르신은 주거지 주변 공원에 쉽게 걸어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원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 설치돼 있다<sup>63.4%</sup>고 생각하는 어르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조사하였을 때, 남녀 모두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공원의 접근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 75세 이상 85세 미만 여성 어르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공원 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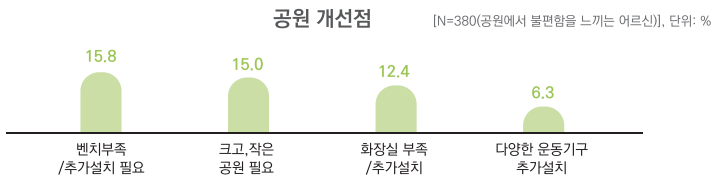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에게 공원 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질문한 결과 ‘화장실<sup>44.9%</sup>’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외에 ‘의자/벤치<sup>15.8%</sup>’, ‘체육시설/운동기구<sup>10.5%</sup>’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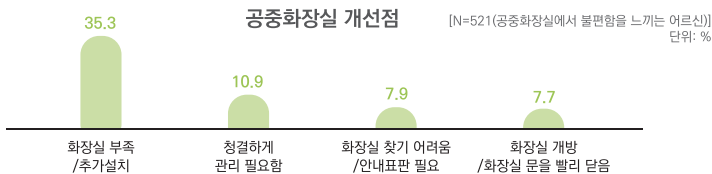
### 공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벤치 부족, 추가 설치 필요<sup>15.8%</sup>’, ‘크고 작은 공원 필요<sup>15.0%</sup>’, ‘화장실 부족, 추가 설치 필요<sup>12.4%</sup>’ 등 공원의 휴게시설 및 공중화장실 확충에 대한 의견과 공원 수 확대 관련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화장실 부족, 추가 설치 필요<sup>35.3%</sup>’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청결하게 관리 필요<sup>10.9%</sup>’, ‘화장실 찾기 어려움, 안내판 필요<sup>7.9%</sup>’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앉을 곳이 부족한 대중교통 정류장, 크고 선명하지 않은 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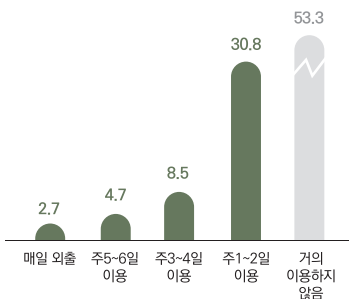
여전히  
불편한  
대중교통  
시설

전체 어르신의 절반 정도 46.7%는 주거지 주변의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을 주 1일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적었으며, 만 55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어르신은 '거의 이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64.6%로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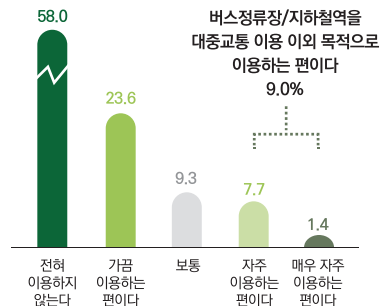
대중교통 정류장 이용 빈도

[N=1,60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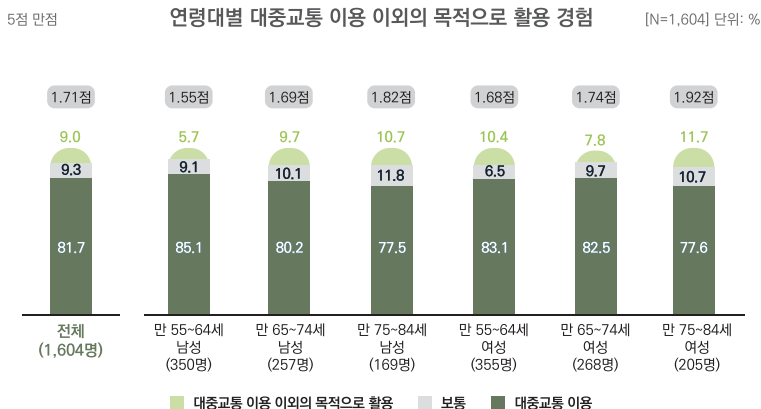
대중교통 이용 목적 이외 활용 정도

[N=1,604] 단위: %





어르신 10명 중 2명<sup>18.3%</sup>은 대중교통이 아닌 다른 목적<sup>휴식 등</sup>으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높으며,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의 목적 외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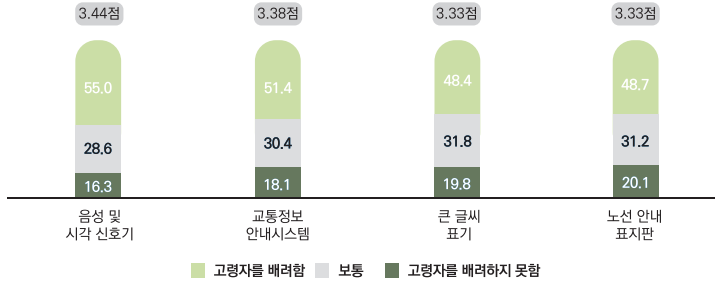


평소 이용하는 대중교통 정류장의 교통정보 알림 시설이 고령자를 배려해 잘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음성 및 시각 신호기’가 3.44점<sup>5점 만점</sup>으로 4개 항목 중 가장 고령자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통정보 안내시스템’은 3.38점, ‘큰 글씨 표기’와 ‘노선 안내 표지판’은 각각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 대중교통 정류장 교통정보 알림 시설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N=1,60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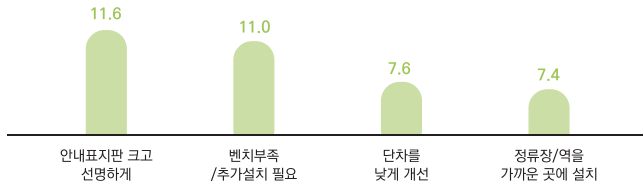


### 대중교통 정류장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불편을 느낀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정류장의 개선 점을 질문한 결과, ‘안내표지판 크고 선명하게<sup>11.6%</sup>’, ‘벤치 부족, 추가 설치 필요<sup>11.0%</sup>’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큰 글씨 표기, 노선 안내 표지판 등은 3.33점<sup>5점 만점</sup>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안내표지판을 더 크고 선명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마다 벤치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추가 확보 요구가 제시되었다.

### 대중교통 정류장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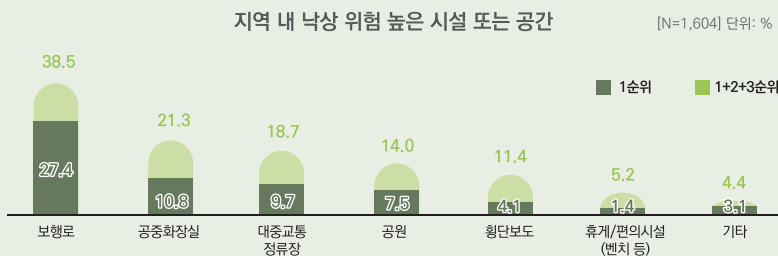
[N=353(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 단위: %





## 어르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 외부공간에서의 낙상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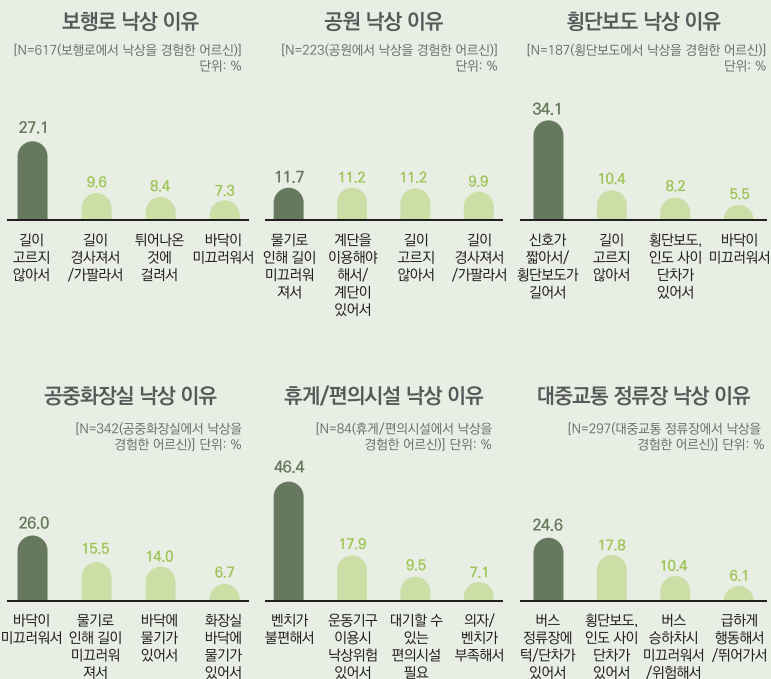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낙상한 경험 또는 낙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물어본 결과, 보행로가 2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중화장실<sup>10.8%</sup>, 대중교통 정류장<sup>9.7%</sup>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보행로에서 낙상 위험을 느끼는 어르신은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만 75세 이상 85세 미만 여성<sup>41.5%</sup>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행로의 낙상 이유로는 ‘길이 고르지 않아서’<sup>27.1%</sup>, ‘길이 경사져서/가팔라서’<sup>9.6%</sup>, ‘튀어나온 것에 걸려서’<sup>8.4%</sup> 등 노면 평탄화 관련 이유가 다수 나타났다. 공원에서는 낙상 위험을 느낀 이유로는 ‘물기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져서’<sup>11.7%</sup>, ‘계단 이용’<sup>11.2%</sup>, ‘길이 고르지 않아서’<sup>1.2%</sup> 등이 있었다. 횡단보도 낙상 이유로는 ‘신호가 짧아서/횡단보도가 길어서’<sup>34.1%</sup> 등 횡단 시간 확보 관련 요인이 제시되었다. 어르신이 생각하는 낙상의 원인과 시설의 개선되어야 할 점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편의시설 낙상 이유로는 ‘벤치가 불편해서’<sup>46.4%</sup>, 대중교통 정류장 낙상 이유는 ‘버스정류장에 단차가 있어서’<sup>24.6%</sup>, 횡단보도, 인도 사이에 단차가 있어서<sup>17.8%</sup> 등 정류장과 보행로, 횡단보도와 보행로 사이의 단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04

## ‘지역 생활편의시설’ 에 대한 이야기





## 어르신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소규모 상업시설

자주 이용하는  
만큼 더욱 불편한  
동네마트  
출입공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여가시설, 문화시설, 체육 시설에 대한 어르신의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상업시설,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나요?

상업시설은 소규모 상업시설, 대규모 상업시설, 전통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설의 이용 경험과 이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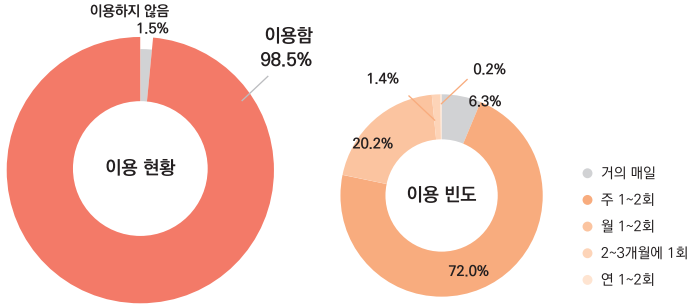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이후** 전체 어르신의 98.5%가 소규모 상업시설을 이용하였고, 대규모 상업시설은 62.9%가, 전통시장은 74.8%가 이용하였다.

상업시설 종류별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소규모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주 1~2회 **72.0%**가 가장 많았고, 대규모 상업시설과 전통시장은 월 1~2회 **50.5%, 35.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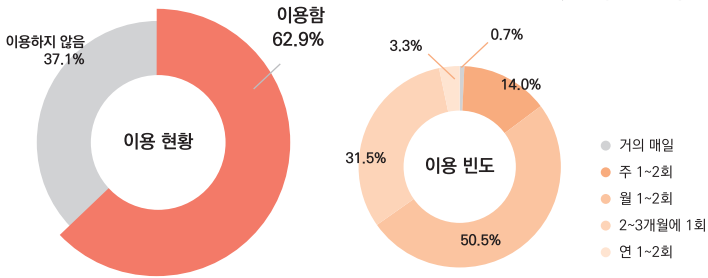
### 소규모 상업시설 이용 현황 및 이용 빈도

[N=1,477  
(소규모 상업시설을 이용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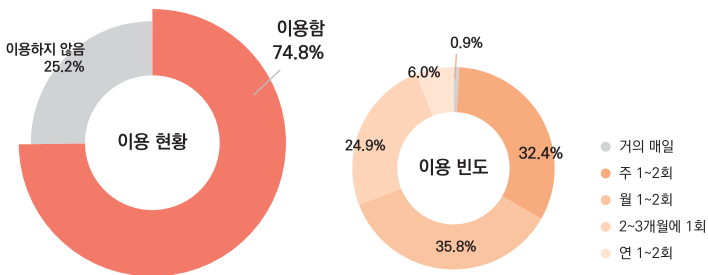
### 대규모 상업시설 이용 현황 및 이용 빈도

[N=943  
(대규모 상업시설을 이용한 어르신)]



### 전통시장 이용 현황 및 이용 빈도

[N=1,122(전통시장을 이용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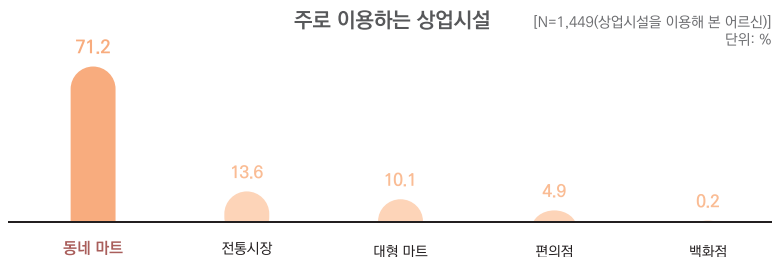
## 상업시설의 이용, 만족하시나요?

상업시설별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상업시설’의 이용 만족도는 4점 만점 **3.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상업시설과 전통시장은 각각 3.08점, 3.09점으로 조사되었다.

## 어떤 상업시설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포함하여 상업시설을 이용해 본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의 종류를 질문하였다. **동네마트 71.2%**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은 15%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시장’, 연령이 낮을수록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동 보조수단 **지팡이, 보행보조차,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동네마트’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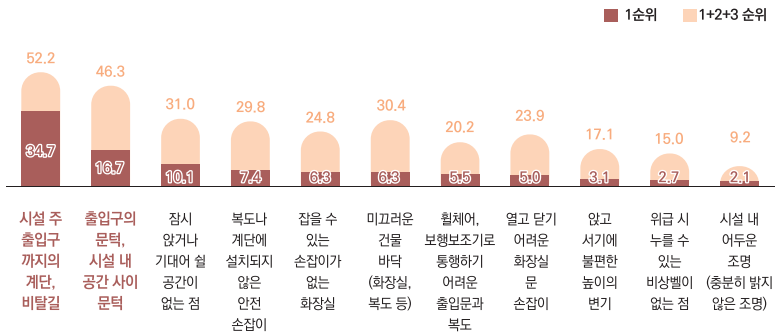




## 상업시설 이용에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상업시설 이용 시 ‘시설 주 출입구까지의 계단, 비탈길<sup>52.2%(1+2+3순위)</sup>’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입구의 문턱, 시설 내 공간 사이 문턱’, ‘잠시 앉거나 기대어 쉴 공간이 없는 점’ 등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전 통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설치되지 않은 안전 손잡이<sup>37.3%</sup>’, ‘미끄러운 건물 바닥<sup>34.3%</sup>’으로 인한 불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업시설 이용 시 불편했던 설비 [N=1,449(상업시설을 이용해 본 어르신)]  
단위: %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슈퍼마켓, 세탁소, 은행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 대체로 충분하다(67.7%, 만족도 3.7점)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소규모 상업시설의 분포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대규모 상업시설과 비교하였을 때의 소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다수의 어르신은 민간 병·의원을 다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건소의 이용도 증가

어르신의 이용  
안전성, 편의성  
개선에 필요한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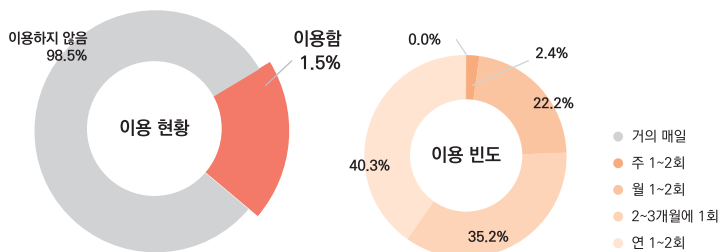
## 의료시설,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나요?

의료시설은 보건소, 국·공립, 시·도립 공공병원, 그외 민간 병·의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소는 전체 어르신의 19.5%가 이용하였고, 공공병원은 17.7%가, 민간 병·의원은 83.7%가 이용하였다.

공공병원과 민간 병·의원은 어르신의 이용 빈도가 '2~3월 1회' 49.6%, 48.5%가 가장 높았고, 보건소는 '연 1~2회' 40.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이용 현황 및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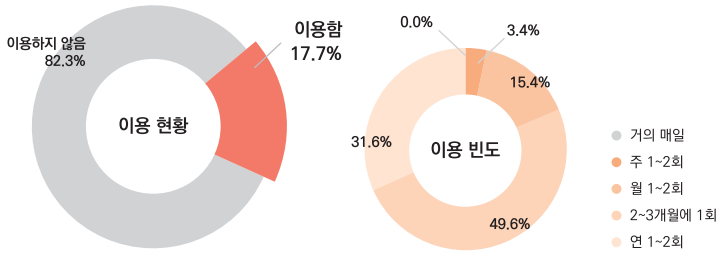
[N=293(보건소를 이용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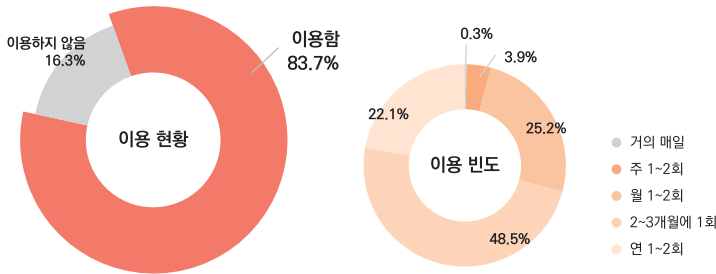
### 공공병원 이용 현황 및 이용 빈도

[N=266(국·공립 등 공공병원을 이용한 어르신)]



### 민간 병·의원 이용 현황 및 이용 빈도

[N=1,256(그 외 민간 병·의원을 이용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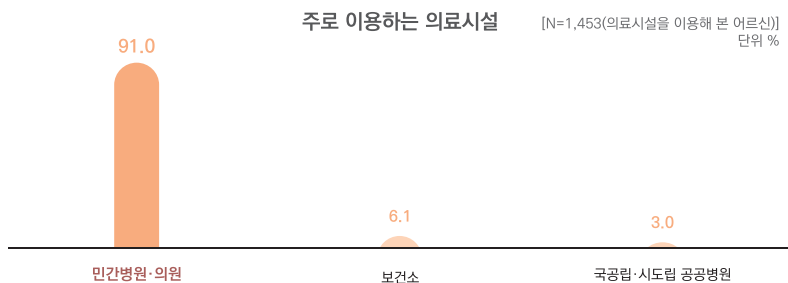
### 의료시설의 이용, 만족하시나요?

의료시설별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건소’의 이용 만족도는 4점 만점 3.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 시·도립 공공병원’은 2.98점으로 이용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 어떤 의료시설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포함하여 의료시설을 이용해 본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의 종류를 질문하였다. 어르신들은 ‘민간 병·의원 91.0%’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국·공립, 시·도립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은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을 받는 경우 ‘보건소’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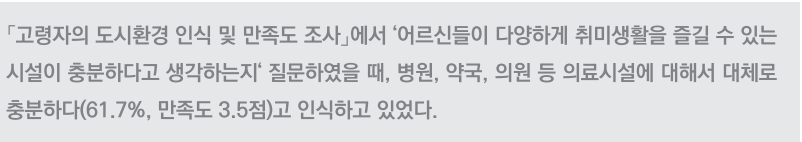
## 의료시설 이용에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의료시설 이용 시 ‘시설 주 출입구까지의 계단, 비탈길 52.2%(1+2+3순위)’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입구의 문턱, 시설 내 공간 사이 문턱’, ‘복도나 계단에 설치되지 않은 안전손잡이’ 등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시설 주 출입구까지의 계단, 비탈길 53.6%’로 인한 불편을 크게 느끼는 반면, ‘보건소’ 이용자들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이용 시 불편했던 설비 [N=1,453(의료시설을 이용해 본 어르신)]  
단위 %







## 65세 미만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청 및 노인교실로, 75세 이상은 경로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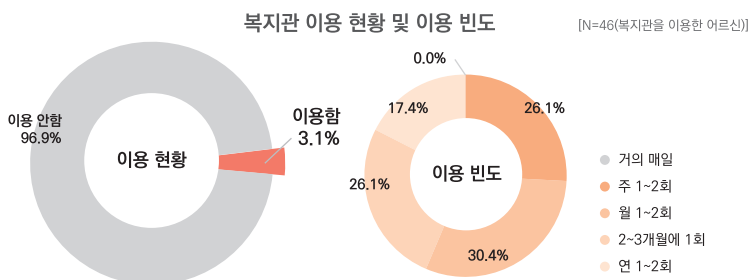
어르신에게  
더욱 안전해야 할  
공공여가  
시설

### 공공여가시설,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나요?

공공여가시설은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교실, 구청 및 동주민센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복지관은 전체 어르신의 3.1%가 이용하였고, 경로당은 3.7%, 노인대학, 노인교실은 0.7%, 구청 및 동주민센터는 1.9%가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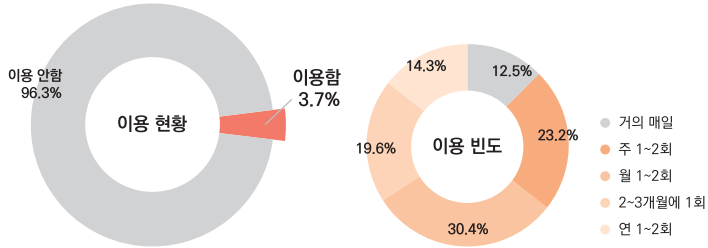
네 종류의 시설 모두 어르신의 이용 빈도가 월 1~2회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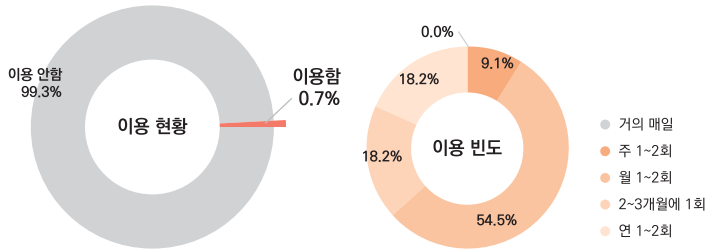
### 경로당 이용 현황 및 이용 빈도

[N=56(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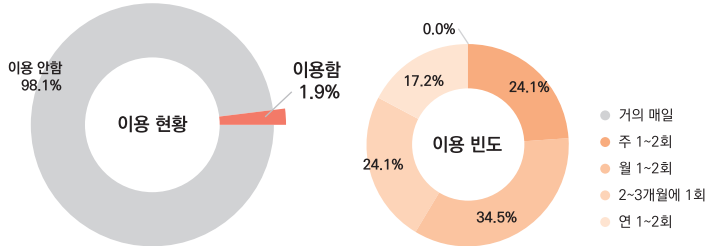
### 노인대학, 노인교실 이용 현황 및 이용 빈도

[N=11(노인대학, 노인교실을 이용한 어르신)]



### 구청 및 동주민센터 이용 현황 및 이용 빈도

[N=29(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이용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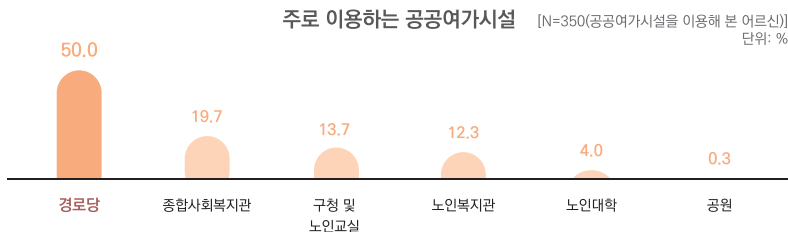
## 공공여가시설의 이용, 만족하시나요?

공공여가시설별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른 시설에 비해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 중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의 이용 만족도는 4점 만점 2.91점으로 가장 낮았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는 2.93점, 복지관은 3.00점으로 낮은 편이고, **경로당**의 이용 만족도는 3.14점으로 공공여가시설 중에서 가장 높았다.

## 어떤 공공여가시설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어르신이 주로 이용한 공공여가시설은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구청 및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공원 등이 있었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포함하여 공공여가시설을 이용한 어르신의 절반<sup>50.0%</sup>이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여성 고령자의 이용 비율이 높은 반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구청 및 노인교실’은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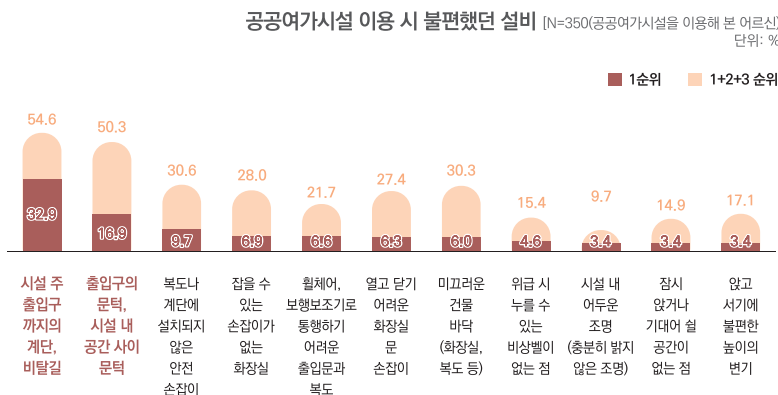




## 공공여가시설 이용에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공공여가시설 이용 시 ‘시설 주 출입구까지의 계단, 비탈길’<sup>54.6%(1+2+3순위)</sup>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입구의 문턱, 시설 내 공간 사이 문턱’, ‘복도나 계단에 설치되지 않은 안전손잡이’, ‘미끄러운 건물 바닥’ 등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설치되지 않은 안전 손잡이’<sup>각 34.9%, 34.8%</sup>로 인한 불편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손잡이 없는 화장실’<sup>32.6%</sup>로 인한 불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문화센터, 노인정, 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편(42.6%, 만족도 3.2점)이라고 인식한 어르신은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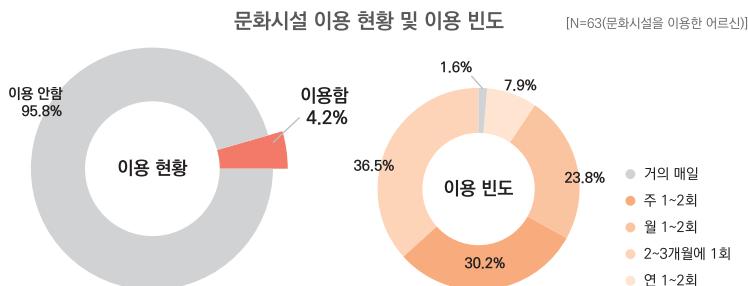
## 65세 미만 어르신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문화생활

어르신이  
편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시설

### 문화시설,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나요?

문화시설은 문화센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등을 포함하였고, 시설의 유형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어르신의 약 4.2%가 문화시설을 이용하였다.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여가시설과 문화시설의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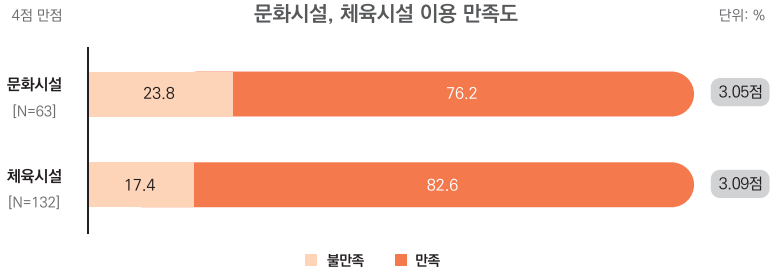
문화시설의 이용 빈도는 연 1~2회가 가장 높고<sup>36.5%</sup>, 다음으로 2~3월 1회<sup>30.2%</sup>로, 문화시설의 이용 경험 뿐 아니라 이용 빈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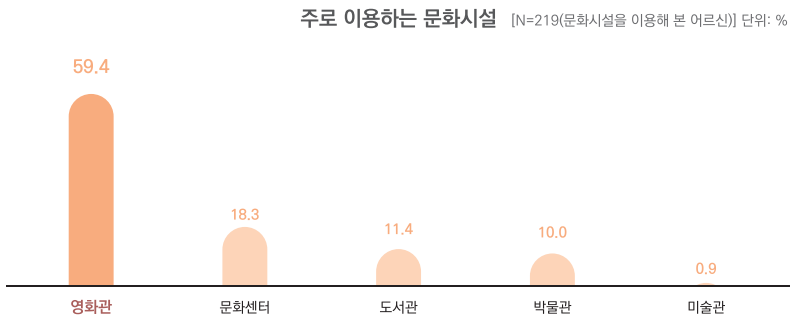
##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하시나요?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는 4점 만점 3.05점으로 체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는 3.27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시설 이용 만족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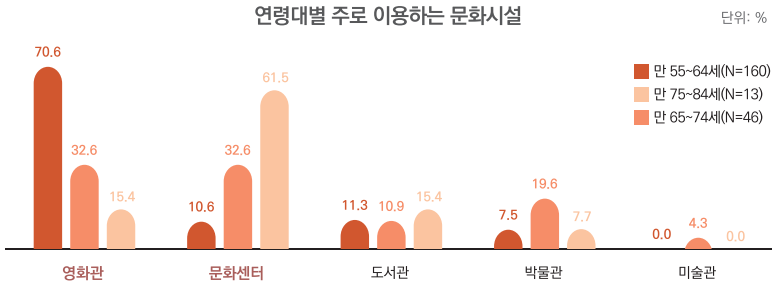
## 어떤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어르신이 주로 이용한 문화시설은 영화관,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었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포함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해 본 어르신의 절반 이상<sup>59.4%</sup>이 영화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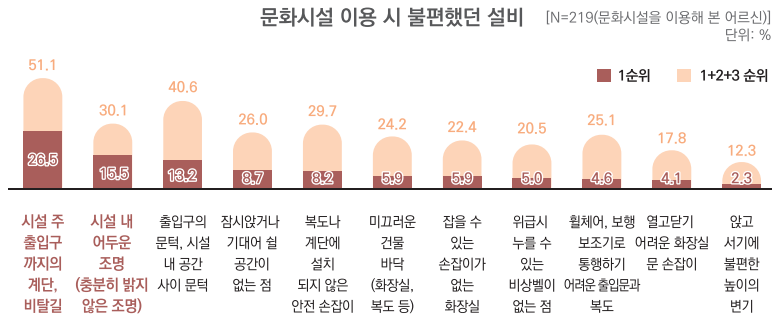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영화관’,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센터’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문화시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문화시설 이용 시 ‘시설 주 출입구까지의 계단, 비탈길<sup>51.1%(1+2+3순위)</sup>’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입구의 문턱, 시설 내 공간 사이 문턱’, ‘시설 내 어두운 조명’, ‘복도나 계단에 설치되지 않은 안전손잡이’ 등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영화관 이용자들은 ‘시설 내 어두운 조명’, 박물관 이용자들은 ‘잠시 쉴 공간이 없는 점’으로 인한 불편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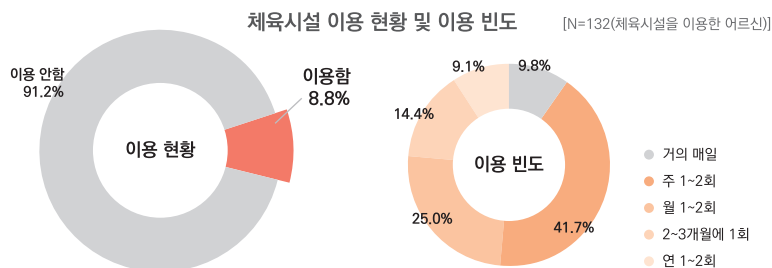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이전 65세 미만 어르신의 4명 중 1명은 체육시설을 이용

어르신이  
동네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체육시설

### 체육시설,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나요?

체육시설은 체육관, 헬스클럽, 수영장, 골프장 등을 포함하였고, 코로나 19 확산 이후 전체 어르신의 약 8.8%가 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육시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이용률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의 이용 빈도는 주 1~2회가 가장 높고 41.7%, 다음으로 월 1~2회 25.0%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다른 시설에 비해 적은 편이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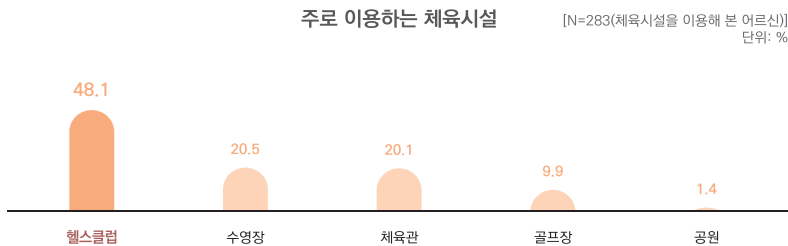




## 어떤 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어르신이 주로 이용한 체육시설은 헬스클럽, 수영장, 체육관, 골프장, 공원 등이 있었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해 본 어르신의 절반 정도 48.1%가 헬스클럽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체육시설은 남성이 여성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영장'은 여성 32.3%이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육시설 이용에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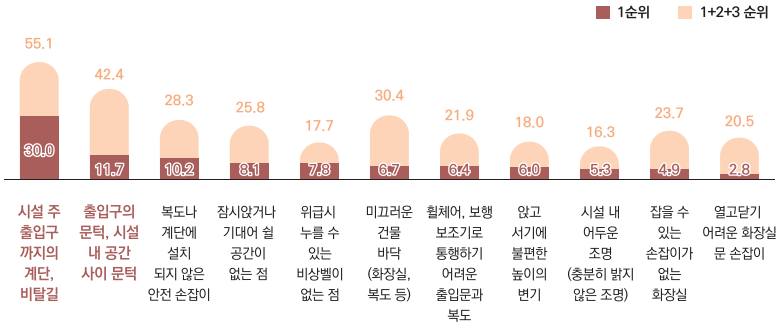
체육시설 이용 시 '시설 주 출입구까지의 계단, 비탈길 55.1%(1+2+3순위)'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입구의 문턱, 시설 내 공간 사이 문턱', '미끄러운 건물 바닥', '복도나 계단에 설치되지 않은 안전손잡이' 등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체육관 이용자들은 '시설 주 출입구까지의 계단, 비탈길 63.2%'을, 수영장 56.9% 및 골프장 53.6% 이용자들은 '출입구, 시설 내 공간 사이 문턱'으로 인한 불편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다.



## 체육시설 이용 시 불편했던 설비

[N=283(체육시설을 이용해 본 어르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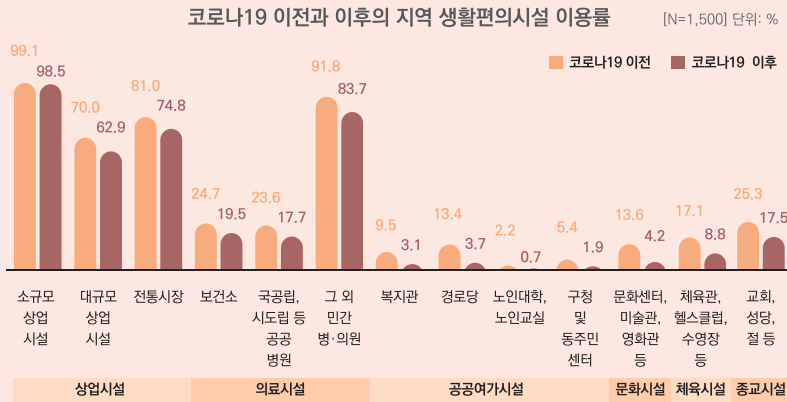


「고령자의 도시환경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공원, 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충분한 편(39.7%, 만족도 3.1점)이라고 인식한 어르신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 내 도로로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체육시설(약 29.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코로나19가 바꾼 지역 생활편의시설의 이용 빈도

모든 시설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지역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이 줄어들었다. 특히, 공공여가시설 **경로당(-9.7%p)**, 문화시설 **문화센터, 미술관 등(-9.4%p)**, 체육시설 **육관, 헬스클럽 등(-8.3%p)** 등에서 이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소규모 상업시설’은 이용률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건소’,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시설**과 ‘복지관’ 등 **공공여가시설**의 이용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이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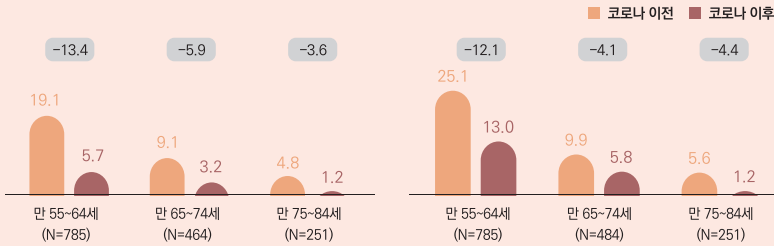


GAP(%)

## 문화시설

## 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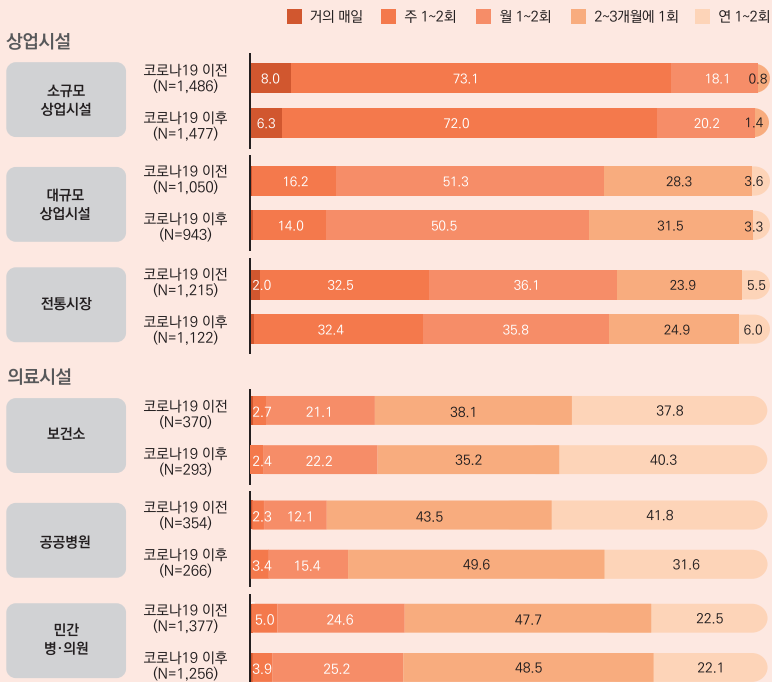
단위: %



**상업시설, 의료시설과 같은 생활 필수시설은 이용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공공여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코로나19 이후 시설의 이용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지역 생활편의시설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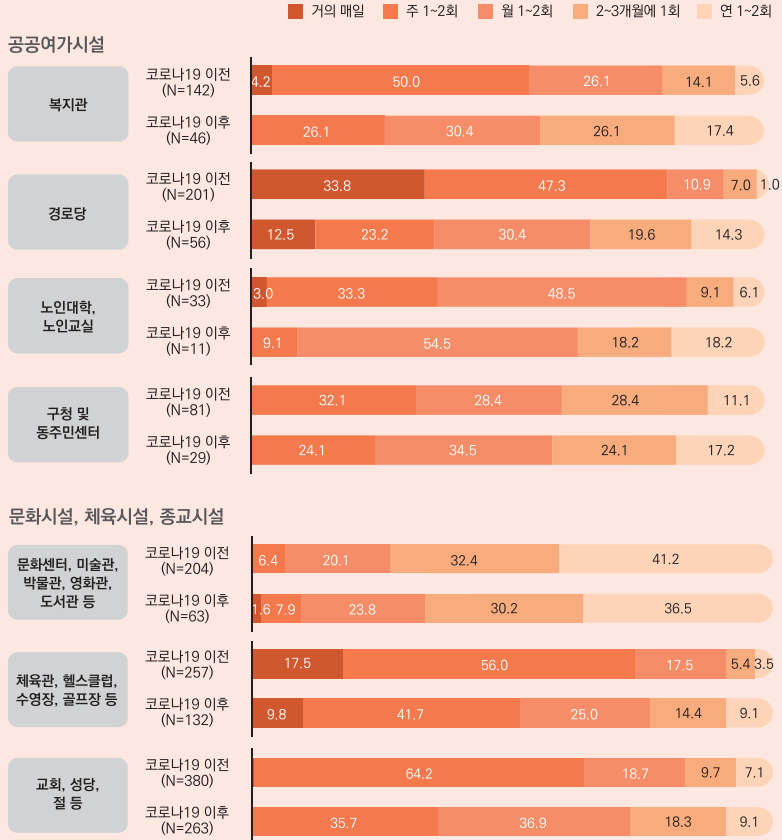
단위: %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지역 생활편의시설 이용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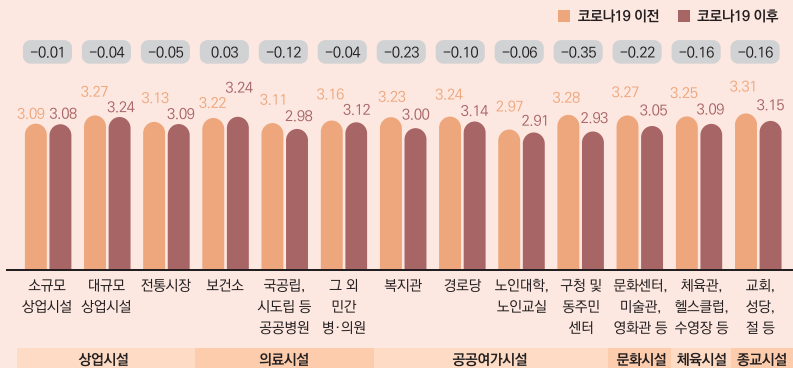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모든 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이용 만족도가 하락한 경향을 보였다.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의 경우 이용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공공여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 이후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GAP(%p)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지역 생활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비교

단위: 점







##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 고령자의 건축공간 인식 및 만족도 조사와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는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전국 만 55세에서 84세 어르신 대상으로 건축공간(2021년)과 도시환경(2020년)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두 조사에서 모두 어르신의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05

---

## ‘지역사회 지속거주’ 에 대한 이야기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어르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

### 집과 집 주변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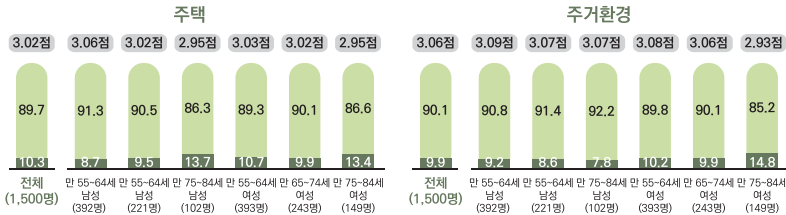
2021년 「고령자의 건축공간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어르신 10명 중 9명이 현재 거주하는 집과 집 주변 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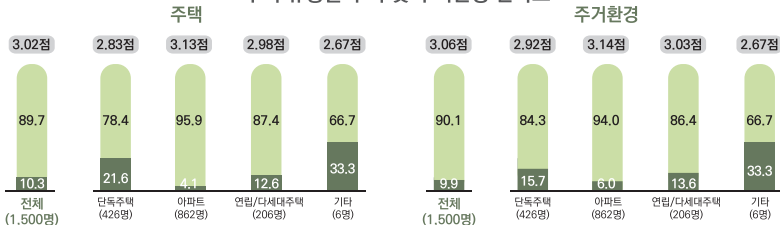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N=1,500] 단위: %

■ 만족 ■ 불만족



#### 주택 유형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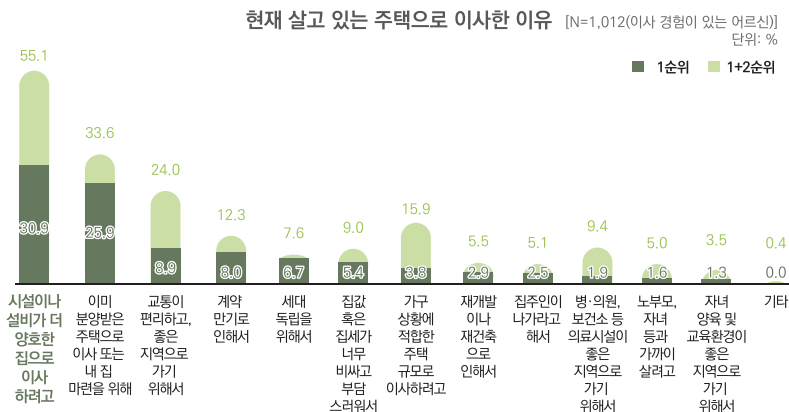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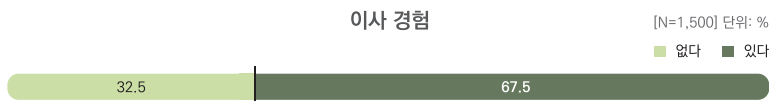




집과 집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에서 살기 위해 현재 집으로 이사

어르신 10명 중 6명 이상<sup>67.5%</sup>은 이사한 경험이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55.1%<sup>1+2순위</sup>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미 분양 받은 주택으로 이사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sup>33.6%</sup>,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sup>24.0%</su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여가·문화·체육시설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상황에 적합한 주택 규모로 이사하려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sup>59.9%(1+2순위)</sup>’, ‘이미 분양 받은 주택으로 이사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sup>37.0%</sup>’ 이사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가구 상황에 적합한 주택 규모로 이사하려고<sup>19.9%</sup>’ 옮겼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이사하기 전 **단독주택에 거주한 어르신은 단독주택으로, 아파트에 거주한 어르신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 10명 중 2명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에서 살기 위해 향후 이사 의향

향후 10년 이내 이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어르신의 18.3%가 이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하려는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이유’와 유사하였다.

주로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sup>54.9%(1+2순위)</sup>’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sup>32.0%</sup>’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주변 환경에 불만족할수록 이사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

어르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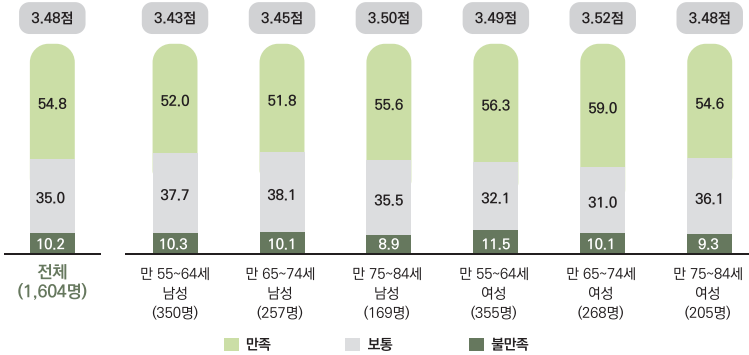
### 10명 중 7명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만족,

2020년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평소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공기질, 공원과 가로수 등 자연적 생활환경)에 대해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만족’으로 응답한 어르신은 72.1%(매우 만족 9.5%+만족하는 편 62.6%), ‘불만족’으로 응답한 어르신은 6.6%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평소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보행로, 횡단보도, 공공화장실, 생활편의시설 등 인공적 생활환경)에 대해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만족’으로 응답한 어르신은 54.8%(매우 만족 3.7%+만족하는 편 51.1%), ‘불만족’으로 응답한 어르신은 10.2%(전혀 만족하지 않음 0.7%+만족하지 않는 편 9.5%)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비 생활환경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자연환경에 만족할수록 생활환경에도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불편한지 조사한 결과, 어르신 10명 중 7명<sup>66.1%</sup>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명<sup>9.9%</sup>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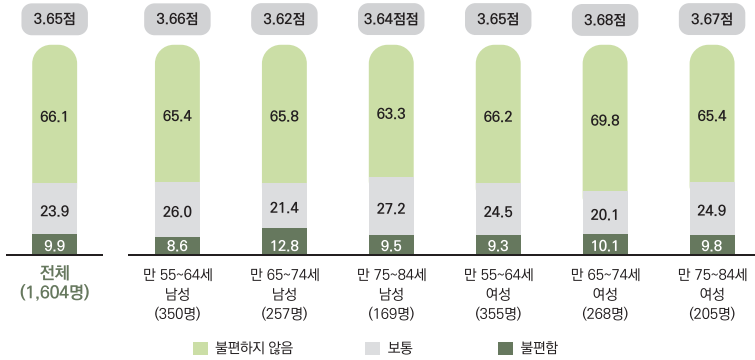
현재 거주 지역과 동네에 대한 불편함은 아파트 거주 어르신 대비 단독 주택 거주 어르신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의 자연 환경공원, 가로수 등과 생활환경보행로, 횡단보도 등에 만족할수록 현재 거주 지역과 동네에 대한 불편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 어르신의 지역 생활환경 불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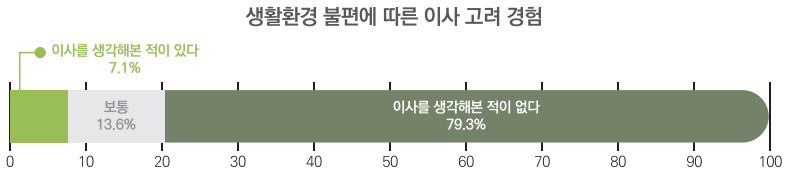
[N=1,604] 단위: %



### 극소수의 어르신만이 생활환경의 불편으로 인해 이사를 고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이 불편해서 이사를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어르신의 7.1%만이 이사를 고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이사를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집에서 지속 거주를 희망

어르신은  
현재 집에서  
지속 거주  
희망

### 10명 중 7명이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지속 거주를 희망

2021년 「고령자의 건축공간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건강이 유지된다면 어디에서 거주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전체 68.7%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sup>16.4%</sup>’,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이사<sup>8.7%</sup>’를 희망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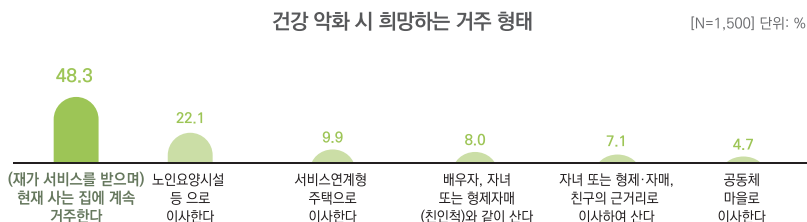




10명 중 5명이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지속 거주를 희망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어디에서 거주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전체 48.3%가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이사<sup>22.1%</sup>’, ‘서비스 연계형 주택으로 이사<sup>9.9%</sup>’를 희망하였다. 건강이 악화될 시 가족, 지인 등 사적 도움보다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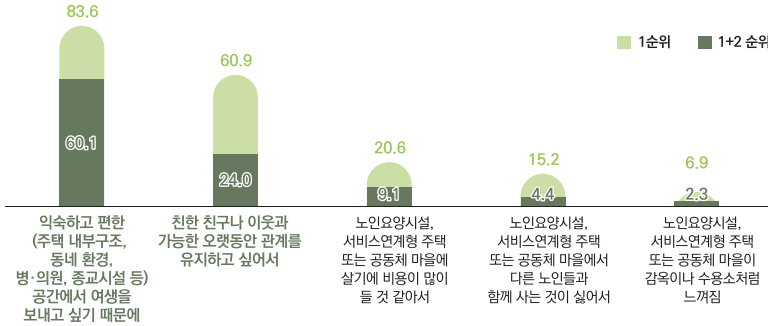


그 이유로는, ‘익숙하고 편한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83.6%(1+2순위)’와 ‘친한 친구나 이웃과 가능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60.9%’가 높게 나타났다. 익숙한 집과 주변 환경, 친구와 이웃 등 사회관계망이 향후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지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

[N=724(현재 집에서 지속 거주를  
희망하는 어르신)] 단위: %



### 현재 집에서 지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을 희망

어르신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지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찾아가는 의료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8%로 가장 높고, 이어서 ‘안전 지원’<sup>66.9%</sup>, ‘병·의원 동행, 외출지원 서비스’<sup>66.3%</su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주택 공간 개조, 지역사회시설 접근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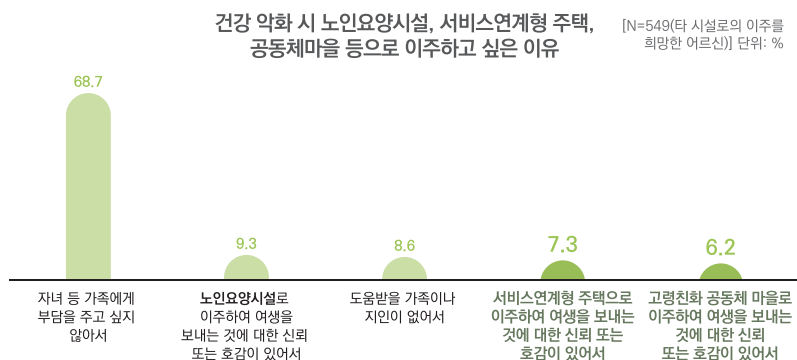
### 타 시설로 이주를 선택한 어르신은 가족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주를 희망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연계형 주택, 고령친화 돌봄 공동체 마을 이주하고 싶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 등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68.7%로 가장 높았다.



각 시설에 대한 신뢰 또는 호감 때문이라는 응답은 모두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한 어르신 중 임차인의 경우 ‘노인요양 시설, 서비스 연계형 주택 또는 공동체 마을에 살기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대안, 서비스 연계형 주택과 고령친화 돌봄 공동체 마을

## 서비스 연계형 주택

현재는 대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노인이 자가 또는 임대 방식의 주택에 입주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비용으로 제공받는 주택을 말한다. 노인요양시설 대비 노인들끼리의 집중도는 낮은 수준이며, 시설이 아닌 주택에서 생활하며 자립생활 필수 서비스를 실비 수준으로 손쉽게 연계 받을 수 있다.





## 고령친화 돌봄 공동체 마을

현재는 대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노인이 임대 또는 매입을 통해 마을 공동체에 속한 주택에 입주하고,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비용으로 제공하는 마을을 말한다.

노인요양시설 대비 노인들끼리의 집중도는 낮은 수준이며, 시설이 아닌 주택에서 생활하며 자립생활 관련 돌봄이 마을 단위로 고령자의 신체기능 변화에 대응하여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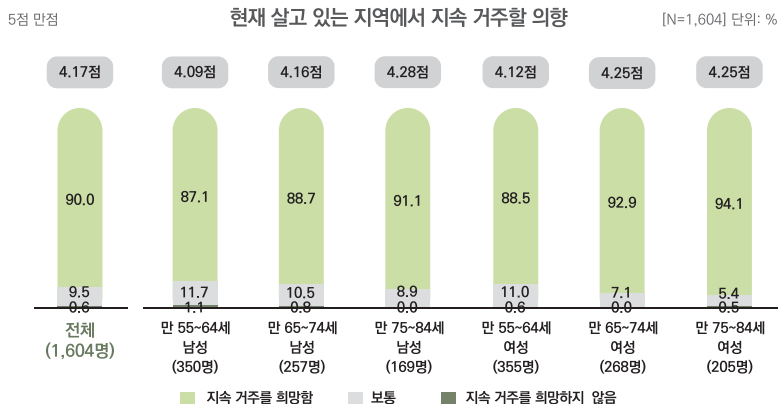


##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서 지속 거주를 희망

어르신은  
현재 지역에  
지속 거주  
희망

### 10명 중 9명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서 지속 거주를 희망

2020년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동네에 지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90.0%**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동네에서 지속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성별, 지역, 연령과 관계없이 지속 거주에 대한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대체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속 거주 의향이 높아지지만,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지속 거주 의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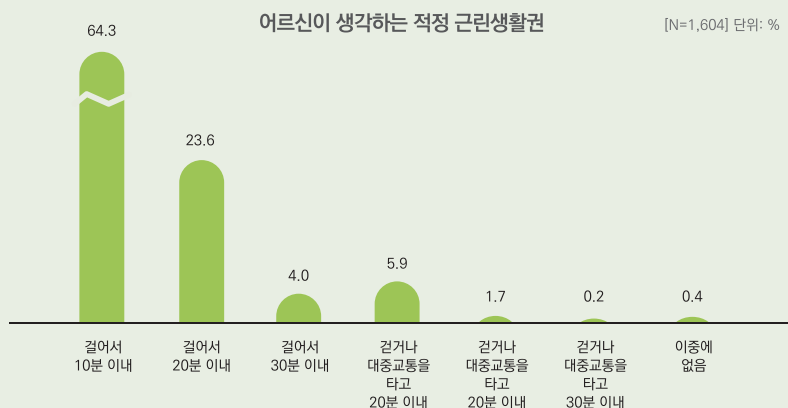




## 집으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 생활편의시설까지의 적정 거리는 걸어서 10분 이내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은 집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걸어서 10분 이내’가 6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걸어서 20분 이내가 2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은 근린생활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도보권 내에 위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도보 10분 이내의 근접한 거리를 가장 선호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도보로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보행보조기를 이용하거나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걸어서 10분 이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06

##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건축과 도시 공간이 되려면?





##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건축공간이 되려면?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공간

더욱 조용하고 넘어짐에 안전한 건축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어르신은 현재 거주하는 집의 낙상안전과 내·외부 소음에 대한 불편함이 구조안전, 냉난방, 환기, 채광, 화재안전 등의 불편함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의 쇠퇴를 동시에 경험하는 어르신에게는 주택에서의 낙상사고 예방이 강조된다. 무장애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의 적용을 통한 주택 내 낙상사고 예방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어르신에게 집 안 곳곳에 존재하는 문턱과 단차, 미끄러운 바닥, 지지할 곳 없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하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청각의 쇠퇴를 경험하는 어르신에게도 주거소음이 불편하다는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주택이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화장실·욕실은 미끄럽지 않고 불편함 없이 목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르신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고, 욕조가 높아 들어가기 불편하며, 욕조와 변기에서 앉고 일어서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물 사용 공간<sup>wet zone</sup>이기에 미끄러짐과 이로 인한 낙상 방지가 최우선이나,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



필수인 용변 해결과 목욕의 과정은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의 쇠퇴를 경험하는 어르신에게 미끄러짐과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 **부엌·주방에서의 식기 수납과 침실에서의 이불 정리가 편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팔과 어깨를 들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어르신은 식기 수납과 이불 정리가 불편하다. 주방과 침실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방치되면 위생의 문제와 낙상 우려의 증대로 이어진다.

### **문턱과 계단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턱과 계단은 바닥의 높이가 변화하는 장소이다. 어르신에게는 평지보다 불안한 움직임이 요구되며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매일 생활하는 집의 문턱과 계단을 기억하여 불안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단차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어르신을 위한 주택의 대비는 손쉽고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르신은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고 느끼거나,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한 비용적 부담과 방법을 몰라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 낙상 등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이 없는 어르신 중 68.1%<sup>1+2순위</sup>가 큰 불편이 없어 주택 시설·설비의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은 낙상 등 주택 내 안전사고 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응답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현재의 저소득 또는 장애인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택개조의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의 기준이 아닌 어르신의 거주 여부와 해당 주택의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



이 확대되어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는 낙상방지 용구 등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이전부터 필요하며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 상태 기준으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르신을 위한 주택의 정비와 고령친화적 대비는 어르신의 소득과 건강, 거주하시는 주택 상태를 고려하여 손쉽고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주택은 어르신 삶에 가장 중요한 건축공간이다.**

매일의 삶에서 어르신 스스로 안전하고 화장실·욕실을 이용할 수 있고 주방과 침실을 불편함 없이 정리하며 넘어질 위험 없이 출입하실 수 있음으로 형성되는 삶의 자신감과 자립능력은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도시환경이 되려면?

어르신의  
활동성  
지원

**도보 외출이 빈번한 어르신의 활동성을 지원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 10명 중 7명 이상은 주 5회 이상 걸어서 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어르신의 약 44%는 매일 외출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르신이 집 밖에서 주 5회 이상 경험하는 도시환경은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어르신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 어르신은 외출 시 경험하는 도시환경 중 불편을 경험하는 공간과 장소를 보행로, 공중화장실, 휴게·편의시설, 대중교통 정류장, 공원, 횡단보도 순서로 응답하였다.

**어르신에게 걷기에 편하고 앉아서 쉴 곳이 있는 보행로가 필요하다.**

어르신이 집 밖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공간은 보행로이다. 하지만, 노점상, 입간판 등 불법점유물과 불법주차, 고르지 못한 보행로는 어르신 외출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어르신의 30.6%가 보행 방해물 때문에 차도로 내려 걸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40.0%가 보행로의 안전도면 처리 미흡으로 불편함을, 보



행로에서 낙상경험 이유의 27.1%가 고르지 않은 노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외출 시 길을 걷다 잠시 쉬어가고자 할 때 어르신의 32.0%<sup>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42.0%</sup>는 마땅히 쉬어갈 곳이 없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이 들어가며 쇠퇴하는 지구력과 근력으로 인해 어르신은 젊은 세대보다 쉬지 않고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다. 주 5회 이상 도보로 외출하는 어르신에게는 잠시 쉬어갈 벤치 또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 **쉽 없이 힘들게 건널 필요 없는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조사에 응답한 어르신의 89.8%는 횡단보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횡단지점 확인이 용이하며, 86.4%는 횡단가능 신호 한 번에 횡단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낙상을 경험한 어르신 중 34.1%는 횡단신호가 짧은 이유로 외출 시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어르신의 17.1%는 횡단신호의 짧음을, 12.9%는 횡단신호기 설치 부족을 지적하였다. 종합해보면 어르신은 주어진 시간 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제로 신호 한 번에 횡단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횡단이 아닌 쉽 없이 힘들어야 하는 경험을 도로를 건널 때마다 한다는 이야기이다.

### **공원을 포함한 도시환경 곳곳에 공중화장실과 벤치가 필요하다.**

조사에 응답한 어르신의 57.6%는 주 1회 이상 공원을 방문하며, 운동과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원 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화장실, 의자·벤치, 운동기구를 지적하였다. 특히 공중화장실 자체의 설치 부족 의견은 어르신의 외출 시 편안한 도시환



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과 벤치의 충분한 공급 필요성을 강조한다.

### **버스·지하철도 타고 사람도 만나는 장소, 대중교통 정류장**

어르신은 주 5회 이상 도보로 외출하지만 주 1일 이상 집 주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장소임과 동시에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과 이외의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어르신을 위해 보다 크고 선명한 안내표지판 설치와 벤치 등 앉아서 쉴 곳 조성이 필요하다.





##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지역사회가 되려면?

어르신  
특성 맞춤형  
시설과  
생활환경

신중년과 기존 고령세대가 지역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역 생활편의시설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조사에 응답한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은 상업시설 중 동네마트와 전통시장, 의료시설 중 민간 병·의원과 보건소, 여가시설 중 경로당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 중 영화관과 문화센터, 체육시설 중 헬스클럽과 수영장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생활편의시설로 베이비붐 세대만 55~64세는 영화관 등 여가시설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부족을 주로 지적하였다. 기존 고령세대만 75~84세 어르신은 병원 등 의료시설과 문화센터 등 복지시설 부족을 주로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지역 생활편의시설은 달라도 모든 시설에서의 출입구 계단과 문턱 이용 어려움, 미끄러운 건물 바닥, 안전한 이동을 위한 손잡이 부족, 앉아서 쉴 공간 부족 해결이 필요하다.

지역 생활편의시설 종류별 주 이용시설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해당 건축공간 이용의 공통적 불편함을 지적하였다. 시설 주 출입구의 계단과



비탈길 이용의 불편함, 출입구와 시설 내 문턱의 불편함이 각각 1, 2순위의 불편함이었다. 이외 앉아서 쉴 공간의 부족함, 미끄러운 바닥, 복도·계단·화장실의 안전 손잡이 부족이 지적되었다.

**어르신 낙상 예방을 위한 지역 생활편의시설과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공간 내 어르신 낙상사고는 화장실에 이어 주택과 시설의 계단과 경사로가 뒤를 잇는다. 미끄러운 바닥, 급한 경사, 어두운 조명 등 건축공간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이유로 낙상을 경험한 경우는 58.5%로 나타나 사람에게 부딪혀서, 갑자기 다리 힘이 풀려서, 어지러움 등 어르신 자신의 신체적 이유로 낙상을 경험하는 경우에 비해 큰 대비를 나타냈다. 외출 시 낙상 경험의 장소로는 보행로,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정류장, 공원, 횡단보도 등이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르신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편안해진 지금의 집과 주변 생활환경, 기존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중요하다.**

조사결과 어르신 10인 중 9인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만족하고, 10인 중 7인은 지역 자연환경에 만족하지만, 10인 중 5인만이 동네 생활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유지된다면 10인 중 7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며,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10인 중 5인은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지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악화 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라도 현재의 집에 지속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익숙하고 편한 공간, 기존 관계성 유지 때문이었다.



가족에게 부담되지 않는, 자립적 생활을 지원받는 서비스 연계형 주택과 돌봄 공동체 마을이 필요하다.

어르신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자립적 또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힘든 경우 어르신은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며,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지원을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으로는 각종 돌봄 서비스가 공급·연계되는 시설, 주택, 마을 등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 조사에 응답한 어르신 중 건강한 경우 대비 건강 악화 시 시설 3.7% → 22.1%, 돌봄주택 4.6% → 9.9%, 공동체 마을 1.6% → 4.7%로의 이주 선호가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은 돌봄서비스 연계 중심의 돌봄주택과 연속적 돌봄체계 중심의 공동체 마을에 대한 선호가 확인된 것은 어르신의 시설 중심 요양에 대한 한계 공감과 대안 탐색 욕구를 나타낸다. 어르신이 기존 집에서 지속 거주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무조건적인 시설 입소 보다는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주택과 마을로 거처를 옮겨 기존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이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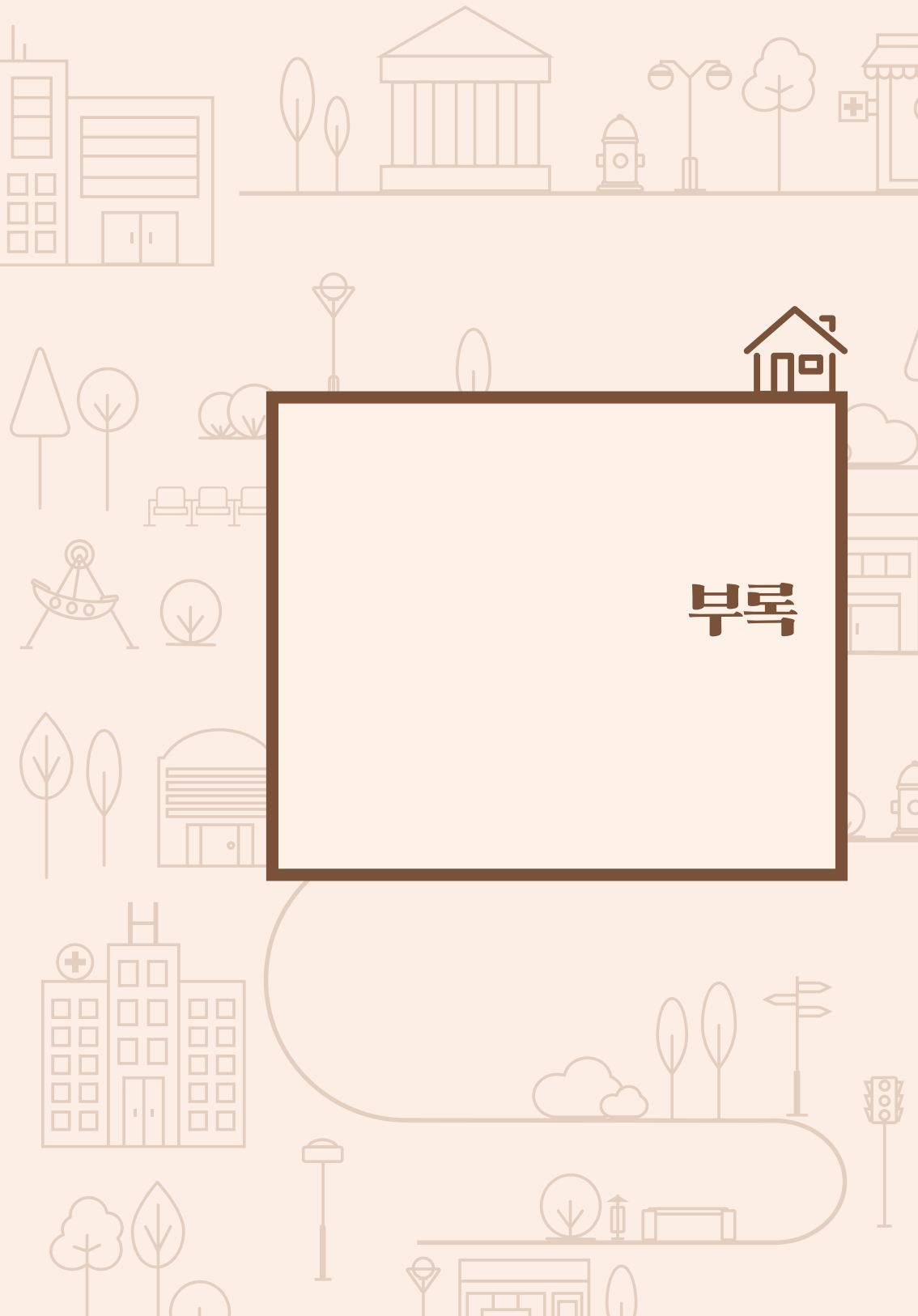












# 부록



# 「고령자의 건축공간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조사 개요

## • 조사 개요

구분	고령자의 건축공간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조사 대상	전국 만 55세 이상 만 84세 이하 성인남녀(현 거주지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면접 조사
표본 규모	일반국민 1,500명
표본 추출	조사 모집단의 지역 및 연령 분포에 따라 층화 비례배분 (※ 거주지역 유형에 따른 분석을 위해 도시형(행정구역이 모두 '동'인 지역 거주자)과 도농복합형(행정구역이 '읍, 면, 동'을 포함하는 지역 거주자)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할당)
조사 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 기간	2021년 6월 14일 ~ 2021년 7월 12일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결과 신뢰도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범위 $\pm 2.45\%p$

## 조사 항목

구분	주요 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거주지역, 거주기간, 연령, 성별 근로여부, 고용형태, 동거인수, 동거가족 유형,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 주거비 부담,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 이동 보조수단 이용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 및 등급
거주 주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 주택 유형 및 층수</li> <li>주택 내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및 집앞까지 이동 경로</li> <li>주택 점유 형태 및 임대주택 유형, 임대료 부담 정도</li> </ul>
거주 주택의 내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 주택 상태</li> <li>집 안 생활 속 불편함</li> <li>노후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개조·보수 및 설치 필요 시설</li> <li>시설의 개조·보수 또는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li> </ul>



구분	주요 내용
지역사회 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전후 이용해 본 지역사회시설</li> <li>• 코로나19 전후 지역사회시설 이용 빈도 및 이용 만족도</li> <li>• 시설 유형별 주 이용 시설 및 이용 시 불편했던 시설</li> </ul>
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상 경험, 낙상 경험 장소, 낙상 경험 시간대</li> <li>• 낙상했던 이유, 도움이나 구조 받은 방법, 낙상을 대비해 조심하는 정도</li> </ul>
지역사회 지속 거주 - 지속적 재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li> <li>• 이사 경험 및 현 주택 거주기간, 직전 주택 유형</li> <li>• 현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이사 의향 및 이사하려는 이유</li> <li>• 건강 유지 시, 희망하는 거주 장소, 건강 악화 시, 희망하는 거주 장소</li> <li>•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에서 살고 싶은 이유</li> <li>•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연계형 주택, 공동체마을) 이주하고 싶은 이유</li> <li>• 노후 생활을 위한 서비스 필요도,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li> </ul>



#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조사 개요

## • 조사 개요

구분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조사 대상	전국 만 55세 이상 만 84세 이하 성인남녀(현 거주지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면접 조사
표본 규모	일반국민 1,604명
표본 추출	지역별 50표본 우선 배분 후 제곱급 비례배분 (※ 2020년 6월 주민등록 인구현황 근거하여 할당)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 기간	2020년 7월 23일 ~ 2020년 8월 30일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결과 신뢰도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범위 ± 2.45%p

## 조사 항목

구분	주요 내용	
외부 공간 및 시설 인식 외부 공간 및 시설 인식	보행로	외출 빈도, 외출 시 방문 및 이용 시설
		접근성   보행로 접근성
		안전성   보행영역 구분 정도, 방해물로 인한 차도 접근, 노면으로 인한 불편, 보행로 너비
		편의성   급경사/계단으로 인한 불편
	공원	방문 빈도 및 이용 이유
		접근성   주거지 도보권 내 공원 위치, 공원시설 접근성 강화
		안전성   공원 이용 안전시설 설치, 공원 내 보행로 조성
		편의성   공원 편의시설 설치 충분, 공원 편의시설 설치 불편
		공원 내 추가 설치 필요 시설
	횡단 보도	안전성   안전 횡단 지점 확인 용이성, 횡단 시점 확인 용이성, 횡단 보행시간 확보, 교통섬 설치 필요
		편의성   멀어서 불편한 정도
		횡단보도 추가 설치 필요 시설 또는 공간



구분	주요 내용		
외부 공간 및 시설 인식	공중 화장실	안정성	이용 시 안전성,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편의성	청결성, 이른 개방시간
		접근성	근접성, 시인성 확보
	휴게/편의 시설	접근성	충분한 개수 및 간격, 시인성 확보, 주요 시설 집합 정도
		휴게/편의	시설 확충 희망 장소
		안정성	야간 이용 안전성
		편의성	고령자 주변 설치, 고령자 신체 특성 고려 설치
정주 환경에 대한 인식	대중교통 및 시설에 대한 인식	이용 빈도, 목적 외 이용 정도	
		대중교통 접근성, 안전 및 편안함, 안전성	
		교통정보 알람시설 설치	
	외출 시 어려움	외출 시 어렵거나 불편한 공간/시설	
		외출 시 어렵거나 불편한 공간/시설 개선 방향	
	주거지역 사고 안전성	낙상 위험 높은 시설/장소, 장소별 낙상 이유	
	커뮤니티 인식 만족도	현 거주 지역 지속 거주 의향	
		현 거주 지역 생활환경의 불편한 정도	
		불편해서 이사를 생각해본 정도	
	시설 수요 만족도	시설 충분 정도 - 공공, 여가, 편의, 의료, 체육, 복지	
		가장 필요한 추가 시설	
	적정 근린생활권 규모 추정	적정 근린생활권 시설 위치	
	사회/물리적 환경	자연환경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펴낸이** 이영범  
**엮은이**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지은이** 고영호, 한승연, 최가윤, 허재석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2. 1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홈페이지** [www.auri.re.kr](http://www.auri.re.kr)  
**디자인·제작**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ISBN** 979-11-5659-357-7

### 비매품

© 2021,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aur;) 건축공간연구원

비매출/무료  
93540

9 791156 593577  
ISBN 979-11-5659-357-7